#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 - 창간호부터 제59호까지를 대상으로 -

임 종 진*

Ⅰ. 머리말
Ⅱ.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1. 시대별 분석
2. 학술지 제호별 분석
3. 주제별 분석
4. 학문 분야별 분석
5. 국제화 수준 분석
Ⅲ. 맺음말

## 국문초록

2017년 3월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 발행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퇴계연구소는 그 동안 『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 『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로 이어지던 독자적인 학술지 발행을 중지하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영남학』과 통합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최초의 통합 발행 학술지가 이때 발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 발행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경북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퇴계연구소가 학술지 단독 발행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대신 학술대회나 단행본 및 총서 간행 등을 통해서 연구 활동의 새로운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장 및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 limjj@knu.ac.kr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이때까지 퇴계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술지에 대하여 정량적인 방식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해 보는 것도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퇴계연구소가 학술지를 통해 이룩한 업적과 성과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제어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영남문화연구원, 『한국의 철학』, 『퇴계학과 한국문화』, 『퇴계학과 유교문화』, 『영남학』

# Ⅰ. 머리말

2017년 3월은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1]의 학술지 발행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하면 퇴계연구소는 『퇴계학과 유교문화』 제59호(2016년 8월 발행)를 끝으로 독자적인 학술지 발행을 중지하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영남학』[2]과 통합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최초의 통합 발행 학술지[3]가 이때 발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이제까지 퇴계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술지에 대하여 정량적인 방식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해 보는 것도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퇴계연구소가 학술지를 통해 이룩한 업적과 성과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퇴계연구소의 학술지'[4]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앞서서 먼저 학술지와 관련된 주요한 연혁을 한번 정리해 두는 것도 이 시점에는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그 주요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73년 07월 16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창립
* 1973년 10월 01일 『한국의 철학』 창간호 발행
* 2000년 12월 06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 평가 B등급
* 2002년 08월 31일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로 제호 변경
* 2003년 01월 01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

1) 이하 '퇴계연구소'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로 표기한다.
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의 학술지인 『영남학』은 현재 제31호(2016년 12월)까지 발행되었다.
3) 2016년 12월 7일에 체결한 「학술지 통합 발행을 위한 협약서」 제3조(통합 발행 관련 사항)에 의거하여 통합 학술지의 명칭은 '『영남학』', 권호는 『퇴계학과 유교문화』의 권호를 이어 받아 '제60호'로 하고,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하기로 하였다.(『영남학』 제3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375-376쪽 참고)
4) 이하 '학술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로 표기한다.

* 2003년 02월 28일『퇴계학과 한국문화』제32호부터 연 2회(2월, 8월) 정기 발행[5)]
* 2005년 01월 01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 2008년 01월 01일 한국학술진흥재단 평가(등재학술지 유지)
* 2010년 01월 01일 한국연구재단 평가(등재 1차 FAIL – 등재학술지 유지)
* 2011년 02월 28일『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로 제호 변경
* 2013년 01월 01일 한국연구재단 평가(등재학술지 유지)
* 2016년 08월 31일『퇴계학과 유교문화』제59호 발행
* 2016년 12월 07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장과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장 사이에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퇴계학과 유교문화』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의 학술지『영남학』의 학술지 통합 발행을 위한 협약 체결
* 2017년 01월 23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통합에 따른 등재학술지로 인정
* 2017년 03월 31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퇴계학과 유교문화』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의 학술지『영남학』을 통합하여『영남학』제60호 발행

이러한 학술지 연혁을 통해서도 퇴계연구소의 학술지가 가지는 학술사적 의의와 한계점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대학' 부설 퇴계 관련 연구소라는 위상을 갖고 있는 퇴계연구소는 또한 국내 최초로 퇴계와 관련된 '연속간행물' 성격의 학술지를 발행하여, 1970년대 초부터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퇴계 연구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담당하였다.[6)] 그런데 국내의 퇴계 연구

5) 제32호 이전에는 대체로 연1회 발행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연2회 발행한 경우(1977년 제5호, 제6호/2001년 제29호, 제30호)도 있었으며, 발행하지 못한 해(1981년)도 있었다. 그리고 제14호(1986년 12월 31일 발행)부터 대체로 연1회 정기 발행(매년 12월 31일)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발행일이 일정하지 않았다.('<부록>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창간호-제59호) 게재논문 목록 및 기타 수록 내용' 참조)

6) 그 즈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퇴계 연구를 비롯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학문외적인 정치적 요인도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한 사례로『한국의 철학』창간을 축하한 당시 대통령 교육문화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朴鍾鴻 (1903-1976)의「축사」를 눈여겨볼

를 선도한 퇴계연구소의 학술지 명칭에는 처음에는 '퇴계'라는 표현이 없었다. 연혁에서 보는 것처럼 퇴계연구소가 발행한 최초의 학술지 제호는 '『한국의 철학(PHILOSOPHY OF KOREA)』'이었으며, 이 명칭으로 창간호부터 제30호까지 발행되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연구소 설립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인 한명수 교수[7]의 전공이 철학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초대 퇴계연구소장인 한명수 교수는 『한국의 철학』「창간사」에서 "本 硏究所는 論叢 『韓國의 哲學』 創刊號로서 退溪學硏究論文集을 上梓하게 되었다. 앞으로 刊行을 거듭해가면서 退溪學을 비롯하여 韓國哲學 硏究의 一翼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8]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학술지의 「격려사」에서 당시 경북대학교의 김영희 총장은 "退溪先生의 敎學精神을 이어 退溪學을 비롯 韓國學의 體系的인 硏究에 꾸준히 精進하여 民族文化中興에 이바지있기를"[9] 당부하였다. 이후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학술지는 김영희 총장의 당부를 충실히 따른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인지 결국 그 후에 학술지의 명칭은 게재논문들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퇴계학과 한국문화(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로 변경되어 제31호부터 제47호까지 발행되었다. 그 후에도 학술지는 제48호부터 '『퇴계학과 유교문화(Toegye Studies and Confucian

---

필요가 있다. 그는 「축사」에서 "慶北은 훌륭한 우리의 先賢들이 태어난 곳이요 儒敎文化의 淵叢이었음이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退溪先生은 우리 겨레뿐 아니라 널리 外國의 선비들까지도 스승으로 추앙하여 왔다."는 말과 더불어 "總力安保요 總和維新이다. 慶北이라고 다를 리야 없지만 그러는 중에도 慶北은 앞장서서 이 겨레의 精神的인 힘의 源泉을 되살려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우리의 文化가 싹터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강조하였다.(박종홍, 「축사」, 『한국의 철학』 창간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3, 5-6쪽 참조) 참고삼아 덧붙이자면, 박종홍이 쓴 최초의 철학논문은 「퇴계의 교육사상」(1924)이다.

7)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소속의 한명수 교수는 초대 퇴계연구소장을 맡은 이후 1980년대 초에 경북대학교 총장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장기간 소장직을 수행하면서 퇴계연구소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8) 한명수, 「창간사」, 『한국의 철학』 창간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3, 2쪽. * 이하 인용문의 원형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한자를 노출하였다.

9) 김영희, 「격려사」, 『한국의 철학』 창간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3, 4쪽.

Culture)』'로 다시 한번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전해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와 관련이 있다. 당시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는 학술지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등재 1차 FAIL'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0] 이 경우 그 다음 평가에서 다시 한번 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등재학술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강등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연구소에서는 보다 전문화된 영역을 확보하여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두 번째 학술지 명칭 변경은 타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호로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는 제59호까지 지속되었고, 이제 '제2의 창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통합 발행'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 Ⅱ.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에 수록된 글은 당연히 대부분 학술논문이며, 기타 글로는 간행사, 격려사, 축사, 특별강연, 서평 등이 약간 수록되어 있다. 학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에서 논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글은 모두 565편이었다.[11] 여기서는 이 565편의 게재논문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학술지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정량적 분석의 틀을 사용하지만 정성적 분석의 효과도 가능한 한 최대한 이끌어 내고자 한다.

---

1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60년사 편찬위원회, 『人文大學 六十年史 자유와 진리, 그 격랑의 세월』,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2012, 256쪽 참조.

11) 총 565편의 논문 가운데는 학술적 의미가 있는 제4호와 제6호의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7회, 제10호의 국제학술세미나 기조연설 4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17호에 실린 「蘇齋 盧守愼 硏究 - 文學・政治・思想을 中心으로 -」라는 논문은 실제 논문 구성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文學(金光淳), 政治(文暻鉉), 思想(崔丞灝) 분야를 다룬 3개의 개별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이 점을 반영하여 전체 논문을 565편으로 산정하였다.('<부록>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창간호-제59호) 게재논문 목록 및 기타 수록 내용' 참조)

## 1. 시대별 분석

‘시대별 분석’에서는 학술지가 발행된 기간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나누어서 각 기간별로 게재논문 편수, 학술지 연간 평균 발행 횟수, (학술지 1회 발행 기준) 평균 게재논문 편수 등을 살펴보았다.

<표 1>

| 시대 | 게재 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학술지 연간 평균 발행 횟수 | 평균 게재논문 편수 (1회 발행 기준) | 비고 |
|---|---|---|---|---|---|
| 1970년대 (1973-1979) | 48 | 8.5 | 1.1 | 6 | 제1호-제8호 발행 |
| 1980년대 (1980-1989) | 60 | 11 | 0.9 | 6.7 | 제9호-제17호 발행 |
| 1990년대 (1990-1999) | 93 | 16.5 | 1 | 9.3 | 제18호-제27호 발행 |
| 2000년대 (2000-2009) | 215 | 38.1 | 1.8 | 11.9 | 제28호-제45호 발행 |
| 2010년대 (2010-2016) | 149 | 26.4 | 2 | 10.6 | 제46호-제59호 발행 |
| | 565 | | 평균 1.3회 | 평균 9.6편 | 44년간 총 59호 발행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퇴계연구소는 1973년부터 2016년까지 44년간 총 59호의 학술지를 발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7년간 총 8호를 발행하였는데, 1977년에는 연 2회(제5호, 제6호) 발행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개최된 퇴계학 관련 학술대회의 성과를 <朱子學과 李退溪 國際學術會議 特輯>으로 이름 붙여 제6호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10년간 총 9호를 발행

하였다. 그런데 유독 1981년에는 학술지를 발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강압적인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는 정치적 격변기라는 상황 속에서 위축된 한국대학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는 10년간 총 10호를 발행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10년간 총 18호를 발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2000년(제28호)과 2002년(제31호)을 제외하면 연 2회 발행하였으며, 특히 제32호(2003년 2월)부터 연 2회(2월, 8월) 정기 발행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10년대에는 7년간 총 14호를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는 창간 이후 2000년대 초까지는 대체로 연 1회 발행하였으나, 발행하지 못한 해도 있었고 또한 상황에 따라 연 2회 발행한 경우도 있었으며, 발행일자도 대체로 불규칙하였다. 그러다가 제32호에 이르러서 마침내 연 2회 정기발행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가 현재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학술지의 발행 시기와 횟수가 점차 정기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학술지를 1회 발행할 때마다 평균 1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양상은 퇴계연구소의 학술지가 학술지의 표준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에서 실시하는 학술지 평가 제도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2. 학술지 제호별 분석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처음 『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이라는 제호로 출발하여,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 『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로 제호를 바꾸면서 발행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호별로 게재논문 편수, 학술지 연간 평균 발행 횟수, (학술지 1회 발행 기준) 평균 게재논문 편수 등을 살펴보았다.

<표 2>

| 학술지 제호 | 발행기간 | 게재 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학술지 연간 평균 발행 횟수 | 평균 게재논문 편수 (1회 발행 기준) | 비고 |
|---|---|---|---|---|---|---|
| 『한국의 철학』 | 1973.10 -2001.12 | 233 | 41.2 | 1 | 7.8 | 제1호-제30호 |
| 『퇴계학과 한국문화』 | 2002.8 -2010.8 | 205 | 36.3 | 1.9 | 12.1 | 제31호-제47호 |
| 『퇴계학과 유교문화』 | 2011.2 -2016.8 | 127 | 22.5 | 2 | 10.6 | 제48호-제59호 |
| | | 565 | | 평균 1.3회 | 평균 9.6편 | 44년간 총 59호 발행 |

<표 2>에 따르면 『한국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최장기간인 29년간 총 30호가 발행되었으며, 『퇴계학과 한국문화』는 9년간 총 17호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퇴계학과 유교문화』는 6년간 총 12호가 발행되었다.

## 3. 주제별 분석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는 그 출발부터 퇴계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주제별 분석'에서는 퇴계와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퇴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퇴계와의 비교연구 포함)와 퇴계학과 관련 주제, 그리고 비퇴계학 관련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3>

| 주제 | | 게재논문 편수 | | 게재 비율 (%) | |
|---|---|---|---|---|---|
| 퇴계학 관련 주제 | 퇴계 관련 주제 | 293 | 130 | 51.9 | 23.0 |
| | 퇴계학파 관련 주제 | | 163 | | 28.9 |
| 비퇴계학 관련 주제 | | 272 | | 48.1 | |
| | | 565 | | | |

표 3>에 따르면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에 실린 퇴계학 관련 논문의 비중은 절반을 조금 넘으며, 이중에서 퇴계를 직접 표면에 내세운 게재논문은 ¼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물론 비퇴계학 관련 게재논문 중에는 유교 또는 성리학과 관련된 것도 있으나 퇴계학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게재논문도 적지 않다. 아래의 표는 다시 위에서 사용한 시대별, 학술지 제호별 범주를 주제와 결합시켜 분석해 본 결과이다.

### 3-1. 시대별 주제 분석

<표 3-1-1>

| 시대 | 주제 | | 게재논문 편수 | | 게재 비율 (%) | |
|---|---|---|---|---|---|---|
| 1970년대 (1973-1979) | 퇴계학 관련 주제 | 퇴계 관련 주제 | 45 | 45 | 93.8 | 93.8 |
| | | 퇴계학파 관련 주제 | | - | | 0 |
| | 비퇴계학 관련 주제 | | 3 | | 6.3 | |
| | | | 48 | | | |

<표 3-1-2>

<table>
<tr><th>시대</th><th colspan="2">주제</th><th colspan="2">게재논문 편수</th><th colspan="2">게재 비율 (%)</th></tr>
<tr><td rowspan="4">1980년대<br>(1980-1989)</td><td rowspan="2">퇴계학 관련 주제</td><td>퇴계 관련 주제</td><td rowspan="2">22</td><td>15</td><td rowspan="2">36.7</td><td>25</td></tr>
<tr><td>퇴계학파 관련 주제</td><td>7</td><td>11.7</td></tr>
<tr><td col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d><td colspan="2">38</td><td colspan="2">63.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60</td><td colspan="2"></td></tr>
</table>

<표 3-1-3>

<table>
<tr><th>시대</th><th colspan="2">주제</th><th colspan="2">게재논문 편수</th><th colspan="2">게재 비율 (%)</th></tr>
<tr><td rowspan="4">1990년대<br>(1990-1999)</td><td rowspan="2">퇴계학 관련 주제</td><td>퇴계 관련 주제</td><td rowspan="2">47</td><td>26</td><td rowspan="2">50.5</td><td>28.0</td></tr>
<tr><td>퇴계학파 관련 주제</td><td>21</td><td>22.6</td></tr>
<tr><td col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d><td colspan="2">46</td><td colspan="2">49.5</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93</td><td colspan="2"></td></tr>
</table>

<표 3-1-4>

<table>
<tr><th>시대</th><th colspan="2">주제</th><th colspan="2">게재논문 편수</th><th colspan="2">게재 비율 (%)</th></tr>
<tr><td rowspan="4">2000년대<br>(2000-2009)</td><td rowspan="2">퇴계학 관련 주제</td><td>퇴계 관련 주제</td><td rowspan="2">109</td><td>22</td><td rowspan="2">50.7</td><td>10.2</td></tr>
<tr><td>퇴계학파 관련 주제</td><td>87</td><td>40.5</td></tr>
<tr><td col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d><td colspan="2">106</td><td colspan="2">49.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215</td><td colspan="2"></td></tr>
</table>

<표 3-1-5>

<table>
<tr><th>시대</th><th colspan="2">주제</th><th colspan="2">게재논문 편수</th><th colspan="2">게재 비율 (%)</th></tr>
<tr><td rowspan="3">2010년대<br>(2010-2016)</td><td rowspan="2">퇴계학<br>관련 주제</td><td>퇴계<br>관련 주제</td><td rowspan="2">70</td><td>22</td><td rowspan="2">47.0</td><td>14.8</td></tr>
<tr><td>퇴계학파<br>관련 주제</td><td>48</td><td>32.2</td></tr>
<tr><td col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d><td colspan="2">79</td><td colspan="2">53.0</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149</td><td colspan="2"></td></tr>
</table>

<표 3-1-6(종합)>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2">퇴계학 관련 주제</th><th rowspan="2">비퇴계학<br>관련 주제</th><th rowspan="2">합계(편)</th></tr>
<tr><th>퇴계 관련<br>주제</th><th>퇴계학파<br>관련 주제</th></tr>
<tr><td rowspan="2">1970년대<br>(1973-1979)</td><td colspan="2">45</td><td rowspan="2">3</td><td rowspan="2">48</td></tr>
<tr><td>45</td><td>-</td></tr>
<tr><td rowspan="2">1980년대<br>(1980-1989)</td><td colspan="2">22</td><td rowspan="2">38</td><td rowspan="2">60</td></tr>
<tr><td>15</td><td>7</td></tr>
<tr><td rowspan="2">1990년대<br>(1990-1999)</td><td colspan="2">47</td><td rowspan="2">46</td><td rowspan="2">93</td></tr>
<tr><td>26</td><td>21</td></tr>
<tr><td rowspan="2">2000년대<br>(2000-2009)</td><td colspan="2">109</td><td rowspan="2">106</td><td rowspan="2">215</td></tr>
<tr><td>22</td><td>87</td></tr>
<tr><td rowspan="2">2010년대<br>(2010-2016)</td><td colspan="2">70</td><td rowspan="2">79</td><td rowspan="2">149</td></tr>
<tr><td>22</td><td>48</td></tr>
<tr><td rowspan="2">합계(편)</td><td colspan="2">293</td><td rowspan="2">272</td><td rowspan="2">565</td></tr>
<tr><td>130</td><td>163</td></tr>
</table>

위의 표들을 종합해 볼 때 1970년대에는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에서 퇴계학 관련 주제, 특히 퇴계를 직접 주제로 한 게재논문이 압도적인 비중(93.8%)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퇴계학 관련 주제의 비중은 1980년대에 36.7%, 1990년대에 50.5%, 2000년대에 50.7%, 2010

년대에 47.0% 정도에 머물게 된다. 특히 퇴계를 직접 주제로 하는 게재논문의 비중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25%, 28%,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10.2%, 14.8%에 그치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퇴계학파 관련 연구가 증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라는 분석 대상의 한계도 있지만, 퇴계를 직접 주제로 하는 논문의 감소 현상은 퇴계학 연구와 관련해서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 3-2. 학술지 제호별 주제 분석

<표 3-2-1>

<table>
<tr><th>학술지 제호</th><th colspan="2">주제</th><th colspan="2">게재논문 편수</th><th colspan="2">게재 비율 (%)</th></tr>
<tr><td rowspan="4">『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td><td rowspan="2">퇴계학 관련 주제</td><td>퇴계 관련 주제</td><td rowspan="2">142</td><td>87</td><td rowspan="2">60.9</td><td>37.3</td></tr>
<tr><td>퇴계학파 관련 주제</td><td>55</td><td>23,6</td></tr>
<tr><td col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d><td colspan="2">91</td><td colspan="2">39.1</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233</td><td colspan="2"></td></tr>
</table>

<표 3-2-2>

<table>
<tr><th>학술지 제호</th><th colspan="2">주제</th><th colspan="2">게재논문 편수</th><th colspan="2">게재 비율 (%)</th></tr>
<tr><td rowspan="4">『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td><td rowspan="2">퇴계학 관련 주제</td><td>퇴계 관련 주제</td><td rowspan="2">85</td><td>24</td><td rowspan="2">41.5</td><td>11.7</td></tr>
<tr><td>퇴계학파 관련 주제</td><td>61</td><td>29.8</td></tr>
<tr><td col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d><td colspan="2">120</td><td colspan="2">58.5</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205</td><td colspan="2"></td></tr>
</table>

<표 3-2-3>

<table>
<tr><th>학술지 제호</th><th colspan="2">주제</th><th colspan="2">게재논문 편수</th><th colspan="2">게재 비율 (%)</th></tr>
<tr><td rowspan="3">『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td><td rowspan="2">퇴계학 관련 주제</td><td>퇴계 관련 주제</td><td rowspan="2">66</td><td>19</td><td rowspan="2">52.0</td><td>15.0</td></tr>
<tr><td>퇴계학과 관련 주제</td><td>47</td><td>37.0</td></tr>
<tr><td col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d><td colspan="2">61</td><td colspan="2">48.0</td></tr>
<tr><td colspan="4">127</td><td colspan="2"></td></tr>
</table>

<표 3-2-4(종합)>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2">퇴계학 관련 주제</th><th rowspan="2">비퇴계학 관련 주제</th><th rowspan="2">합계(편)</th></tr>
<tr><th>퇴계 관련 주제</th><th>퇴계학과 관련 주제</th></tr>
<tr><td rowspan="2">『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td><td colspan="2">142</td><td rowspan="2">91</td><td rowspan="2">233</td></tr>
<tr><td>87</td><td>55</td></tr>
<tr><td rowspan="2">『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td><td colspan="2">85</td><td rowspan="2">120</td><td rowspan="2">205</td></tr>
<tr><td>24</td><td>61</td></tr>
<tr><td rowspan="2">『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td><td colspan="2">66</td><td rowspan="2">61</td><td rowspan="2">127</td></tr>
<tr><td>19</td><td>47</td></tr>
<tr><td rowspan="2">합계(편)</td><td colspan="2">293</td><td rowspan="2">272</td><td rowspan="2">565</td></tr>
<tr><td>130</td><td>163</td></tr>
</table>

『한국의 철학』에서는 퇴계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이 60.9%, 퇴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이 37.3%나 되었으나, 『퇴계학과 한국문화』에서는 41.5%, 11.7%, 『퇴계학과 유교문화』에서는 52.0%, 15.0%로 상대적으로 퇴계학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퇴계와 직접 관련된 논문의 비중 하락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리고 『퇴계학과 한국문화』에서 비퇴계학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의 비중이 58.5%를 차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2004년 봄에 퇴계연구소는 북한,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 연길에서 '21世紀 社會發展과 東北亞文化'라는 주제를 내걸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12], 그 성과물을 담은 학술지 제35호(2004년 8월)[13]를 '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특집호'로 간행하였는데,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36편 중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퇴계학 관련 논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진행된 『고령문화사대계』[14]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이 기간 동안 6회 발행된 학술지(『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2호-제47호) 가운데 5회에 걸쳐 대부분 퇴계학과 무관한 고령과 관련된 논문들이 적지 않게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퇴계연구소의 학술지가 2010년 1월 1일자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 1차 FAIL'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 일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학문 분야별 분석

'학문 분야별 분석'에서는 게재논문 필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삼아서 게재논문의 학문 분야를 분류하였다. 다만 전공 확인이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게재논문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가능한 간략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문학, 역사, 철학, 기타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기타에는 건축학, 고고학, 교육학, 민속학, 사회학, 서지학, 음악, 정치학, 지리학, 풍수지리, 한의학 등이 포함

12) 박영호, 「발간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5호-1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3쪽 참조.

13)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5호는 퇴계연구소의 학술지 중에서 유일하게 두 권 체제(제35호-1권, 제35호-2권)로 발행되었으며, 모두 41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14) 모두 5권으로 구성된 『고령문화사대계』(서울: 역락, 2008-2010)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이 공동으로 편찬하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퇴계연구소의 성격과 꽤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사업에 퇴계연구소가 굳이 참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되어 있는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육학과 서지학 그리고 정치학 분야이다.

<표 4>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문학 | 213 | 37.7 |
| 역사 | 101 | 17.9 |
| 철학 | 196 | 34.7 |
| 기타 | 55 | 9.7 |
| | 565 |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에는 문학과 철학 분야의 논문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역사 분야의 비중은 크지 않다. 아래의 표는 시대별, 학술지 제호별 범주를 학문 분야와 결합시켜 분석해 본 결과이다.

### 4-1. 시대별 학문 분야 분석

<표 4-1-1>

| 시대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1970년대 (1973-1979) | 문학 | 8 | 16.7 |
| | 역사 | 2 | 4.1 |
| | 철학 | 33 | 68.8 |
| | 기타 | 5 | 10.4 |
| | | 48 | |

<표 4-1-2>

| 시대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1980년대 (1980-1989) | 문학 | 18 | 30 |
| | 역사 | 15 | 25 |
| | 철학 | 21 | 35 |
| | 기타 | 6 | 10 |
| | | 60 | |

<표 4-1-3>

| 시대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1990년대 (1990-1999) | 문학 | 30 | 32.3 |
| | 역사 | 14 | 15.1 |
| | 철학 | 40 | 43.0 |
| | 기타 | 9 | 9.7 |
| | | 93 | |

<표 4-1-4>

| 시대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2000년대 (2000-2009) | 문학 | 106 | 49.3 |
| | 역사 | 44 | 20.5 |
| | 철학 | 56 | 26.0 |
| | 기타 | 9 | 4.2 |
| | | 215 | |

<표 4-1-5>

| 시대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2010년대 (2010-2016) | 문학 | 51 | 34.2 |
| | 역사 | 26 | 17.5 |
| | 철학 | 46 | 30.9 |

| | | | |
|---|---|---|---|
| | 기타 | 26 | 17.5 |
| | | 149 | |

<표 4-1-6(종합)>

| | 문학 | 역사 | 철학 | 기타 | 합계 (편) |
|---|---|---|---|---|---|
| 1970년대 (1973-1979) | 8 | 2 | 33 | 5 | 48 |
| 1980년대 (1980-1989) | 18 | 15 | 21 | 6 | 60 |
| 1990년대 (1990-1999) | 30 | 14 | 40 | 9 | 93 |
| 2000년대 (2000-2009) | 106 | 44 | 56 | 9 | 215 |
| 2010년대 (2010-2016) | 51 | 26 | 46 | 26 | 149 |
| 합계(편) | 213 | 101 | 196 | 55 | 565 |

1970년대에는 총 48편의 게재논문 중 철학 분야가 33편, ⅔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철학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마도 초창기에 연구소를 창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철학 전공 교수진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 문학과 역사 분야는 약진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에, 철학 분야는 이전에 비해서 그 비중이 작아진 모습이다. 2000년대의 특징은 문학 분야가 50% 가까운 게재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철학은 그 비중이 더욱 작아졌다. 2010년대에는 기타 분야에서 게재논문이 늘어난 점을 특징으로 삼을만하다.

## 4-2. 학술지 제호별 학문 분야 분석

<표 4-2-1>

| 학술지 제호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 | 문학 | 69 | 29.6 |
| | 역사 | 39 | 16.7 |
| | 철학 | 104 | 44.6 |
| | 기타 | 21 | 9.0 |
| | | 233 | |

<표 4-2-2>

| 학술지 제호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 | 문학 | 102 | 49.8 |
| | 역사 | 38 | 18.5 |
| | 철학 | 48 | 23.4 |
| | 기타 | 17 | 8.3 |
| | | 205 | |

<표 4-2-3>

| 학술지 제호 | 학문 분야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 | 문학 | 42 | 33.1 |
| | 역사 | 24 | 18.9 |
| | 철학 | 44 | 34.6 |
| | 기타 | 17 | 13.4 |
| | | 127 | |

<표 4-2-4(종합)>

| | 문학 | 역사 | 철학 | 기타 | 합계(편) |
|---|---|---|---|---|---|
| 『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 | 69 | 39 | 104 | 21 | 233 |
|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 | 102 | 38 | 48 | 17 | 205 |
| 『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 | 42 | 24 | 44 | 17 | 127 |
| 합계(편) | 213 | 101 | 196 | 55 | 565 |

『한국의 철학』에서는 게재논문의 양적 비중이 철학(44.6%), 문학(29.6%), 역사(16.7%)의 순서로 되어 있었는데, 『퇴계학과 한국문화』에서는 철학(23.4%)과 문학(49.8%)의 순서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퇴계학과 유교문화』에서는 철학과 문학이 대체로 양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 5. 국제화 수준 분석

'국제화 수준 분석'은 학술지에 게재된 국외논문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여기서 국내논문과 국외논문의 구분은 게재 당시의 논문 필자가 소속된 기관을 기준으로 삼았다.[15] 그리고 기타로 분류한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국내 필자와 국외 필자가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한

15) 이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신청요강」(2016.3)을 준용한 것이다. 신청요강의 '<첨부 2-1> 평가 세부기준(신청자격 부문)'의 '5. 논문 투고 다양성' 항목 설명 중에는 "투고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국내기관 연구자로 분류하며,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국외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국외기관 연구자로 분류함"이라는 것이 있다.

경우(2편)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필자의 논문인 경우이다. 앞서 '3-2. 학술지 제호별 주제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2004년 봄에 퇴계연구소는 북한, 중국과 공동으로 중국 연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물을 학술지 제35호(2004년 8월)에 담아 '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특집호'로 간행하였는데, 여기에 북한 학자의 발표문 13편이 수록되어 있다.[16] 이 경우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표 5>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국내논문 | 497 | 88.0 |
| 국외논문 | 53 | 9.4 |
| 기타 | 15 | 2.7 |
| | 565 | |

<표 5>를 근거로 삼는다면,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는 대략 10% 정도의 국외논문을 수록한 셈인데, 결코 많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정도로는 '국제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1. 시대별 국제화 수준 분석

16)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5호-2권'에 수록된 13편의 북한 학자의 발표문 중에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글도 있다. 예를 들면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본 유교사상의 평가 문제」(김화종・사회과학원 김일성주의연구소 박사), 「장편소설 『피바다』에 대하여」(고철훈・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표 5-1-1>

| 시대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1970년대 (1973-1979) | 국내논문 | 38 | 79.2 |
| | 국외논문 | 10 | 20.8 |
| | 기타 | - | - |
| | | 48 | |

<표 5-1-2>

| 시대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1980년대 (1980-1989) | 국내논문 | 53 | 88.3 |
| | 국외논문 | 7 | 11.7 |
| | 기타 | - | - |
| | | 60 | |

<표 5-1-3>

| 시대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1990년대 (1990-1999) | 국내논문 | 86 | 92.5 |
| | 국외논문 | 7 | 7.5 |
| | 기타 | - | - |
| | | 93 | |

<표 5-1-4>

| 시대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2000년대 (2000-2009) | 국내논문 | 192 | 89.3 |
| | 국외논문 | 10 | 4.7 |
| | 기타 | 13 | 6.0 |
| | | 215 | |

<표 5-1-5>

| 시대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2010년대 (2010-2016) | 국내논문 | 128 | 85.9 |
| | 국외논문 | 19 | 12.8 |
| | 기타 | 2 | 1.3 |
| | | 149 | |

<표 5-1-6(종합)>

| | 국내논문 | 국외논문 | 기타 | 합계(편) |
|---|---|---|---|---|
| 1970년대 (1973-1979) | 38 | 10 | - | 48 |
| 1980년대 (1980-1989) | 53 | 7 | - | 60 |
| 1990년대 (1990-1999) | 86 | 7 | - | 93 |
| 2000년대 (2000-2009) | 192 | 10 | 13 | 215 |
| 2010년대 (2010-2016) | 128 | 19 | 2 | 149 |
| 합계(편) | 497 | 53 | 15 | 565 |

1970대에 국외논문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은 국제학술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그 성과를 학술지에 수록했기 때문이다.[17]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계속 국외논문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 조금 회복되었는데, 이는 학술지 평가에 대비해서 국외논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이다.

17) '<부록>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창간호-제59호) 게재논문 목록 및 기타 수록 내용' 참조.

## 5-2. 학술지 제호별 국제화 수준 분석

<표 5-2-1>

| 학술지 제호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 | 국내논문 | 207 | 88.8 |
| | 국외논문 | 26 | 11.2 |
| | 기타 | - | - |
| | | 233 | |

<표 5-2-2>

| 학술지 제호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 | 국내논문 | 183 | 89.3 |
| | 국외논문 | 9 | 4.4 |
| | 기타 | 13 | 6.3 |
| | | 205 | |

<표 5-2-3>

| 학술지 제호 | 논문 구분 | 게재논문 편수 | 게재 비율 (%) |
|---|---|---|---|
| 『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 | 국내논문 | 107 | 84.3 |
| | 국외논문 | 18 | 14.2 |
| | 기타 | 2 | 1.6 |
| | | 127 | |

<표 5-2-4(종합)>

| | 국내논문 | 국외논문 | 기타 | 합계(편) |
|---|---|---|---|---|
| 『한국의 철학』(창간호-제30호) | 207 | 26 | - | 233 |
|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 | 183 | 9 | 13 | 205 |
| 『퇴계학과 유교문화』(제48호-제59호) | 107 | 18 | 2 | 127 |
| 합계(편) | 497 | 53 | 15 | 565 |

위의 표를 살펴보면 『퇴계학과 한국문화』(제31호-제47호) 시기에 국외논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는 제35호에 실린 국제학술대회 관련 국외논문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논문만 수록되어 있어서 일종의 '쇄국 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18] 그 후 『퇴계학과 유교문화』 발행 시기에 국외논문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은 역시 학술지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 Ⅲ. 맺음말

인문학 관련 연구소라면 독자적인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퇴계연구소가 직면한 현재의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이러한 일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학술지 발행과 관

18) '<부록>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창간호-제59호) 게재논문 목록 및 기타 수록 내용' 참조.

련된 제반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연구소의 인적·물적 여건의 미비 및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 대비하는 문제의 어려움 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투고논문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것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투고논문의 안정적인 확보는 학술지의 정상적인 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학술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고논문의 양적 문제가 일차적으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퇴계학 및 유학 관련 학술지 발행 현황 자료(2016년 12월 기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퇴계학 관련 학술지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발행기관 | 학술지 명 | 창간 시기 | 발행 간기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 | 비고 |
|---|---|---|---|---|---|---|
| | | | | 등재 후보지 | 등재지 | |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퇴계학과 유교문화 | 1973. 10.1 | 연 2회 | 2003년 | 2005년 | 제59호(2016.8) 발행 이후 발행 중지 |
| (사)퇴계학연구원 | 퇴계학보 | 1973. 10.15 | 연 2회 | 2003년 | 2005년 | 현재 발행 중 |
|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 퇴계학 연구 | 1987.11 | 연 1회 | - | - | 제22집(2008.8) 발행 이후 폐간 |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 퇴계학 | 1989.12 | 연 1회 | - | - | 현재 발행 중 |
| (사)퇴계학부산연구원 | 퇴계학 논총 | 1995.5 | 연 2회 | 2011년 | 2015년 | 현재 발행 중 |
| (사)영남퇴계학연구원 | 퇴계학 논집 | 2007.12 | 연 2회 | 2011년 | 2016년 | 현재 발행 중 |

현황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19]에서 발행하던 『퇴계학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폐간되었고,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퇴계학』은 한국연구재단의 비등재지로 연 1회 발행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인 『퇴계학과 유교문화』는 단독 발행을 중지하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과 『영남학』이라는 제호로 학술지를 공동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학 밖의 민간연구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최근에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재정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보이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은 퇴계학 관련 연구의 정상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20]

그리고 투고논문 확보와 관련해서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와 역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유교 관련 학술지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발행기관 | 학술지 명 | 발행 간기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
|---|---|---|---|
|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 남명학연구 | 연 4회 | 등재지 |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國際版 儒敎文化硏究(중국어, 영어) | 연 2회 | 등재지 |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유학연구 | 연 4회 | 등재지 |
| 한국공자학회 | 공자학 | 연 2회 | 등재지 |

19) 현재는 해당 연구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20)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투고논문의 심사료와 게재논문의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민간연구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하여 학술대회 발표비나 게재시 원고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퇴계학 관련 투고논문의 확보뿐만 아니라 보다 우수한 논문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 | | |
|---|---|---|---|
| 한국유교학회/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유교사상문화연구 | 연 4회 | 등재지 |

이러한 학술지는 대체로 전문학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학술지 통합 발행을 앞두고 있는 퇴계연구소의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례는 기존의 『유교문화연구』(성균관대)와 『유교사상문화연구』(한국유교학회)를 통합한 『유교사상문화연구』일 것이다. 이외에도 퇴계연구소가 게재논문을 확보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술지로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 발행기관 | 학술지 명 | 발행 간기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
|---|---|---|---|
| 동양철학연구회 | 동양철학연구 | 연 4회 | 등재지 |
| 한국동양철학회 | 동양철학 | 연 2회 | 등재후보지 |
| * 이외에도 고전문학・전통문화・중국학・철학・한문학 분야 등의 관련 학술지 | | | |

투고논문의 확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때,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퇴계연구소의 현재 역량으로는 자체적으로 적절히 대처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퇴계연구소의 학술지는, 아직 학회 단위의 학술지가 활발하게 발행되지 않던 학술지 발행 초창기부터 1990대까지는 주로 경북대학교 소속 교수진의 연구 성과와 퇴계학 관련 국제학술대회의 성과를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경북대학교와 관련된 학문후속세대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 이후에는 교외의 연구자들에게도 발표의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일정한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학술계의 변화 양상과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제 퇴계연구소의 미래와 관련해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는 학술지의 명맥만 유지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이제 경북대학교 교내의 또 다른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인 영남문화연구원과 학술지를 통합 발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북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기회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퇴계연구소가 학술지의 단독 발행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대신 학술대회나 단행본 및 총서 간행 등을 통해 연구활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3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 제31호, 2016.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60년사 편찬위원회, 『人文大學 六十年史 자유와 진리, 그 격랑의 세월』,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201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한국의 철학』 창간호, 197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5호, 2004.
한국연구재단, 「2016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신청요강」, 2016.
<부록>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창간호-제59호) 게재논문 목록 및 기타 수록 내용

▦ Abstract

# A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Academic Journal of Toegye Institut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from Its Initial Number to Number 59 -

Lim, Jong-jin

March 2017 will be recorded as a turning point for the publication history of the academic magazine of Toegye Institut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egye Institute has stopped the publication of its independent journal that had been continued from *PHILOSOPHY OF KOREA*(Numbers 1 to 30),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Numbers 31 to 47), and *Toegye Studies and Confucian Culture*(Numbers 48 to 59), and decided to make joint publication with Youngnam Studies that had been issued by Youngnam Culture Institute. This joint publication has resulted the first emergence of joint academic journal, the result of which will provide a chance to concentrate diverse research abilitie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regard to Korean studies. Also, it will reduce Toegye Institute from the burden of single-handed journal publication, and give chance to search new ways out for better research activities such as promotion of academic seminars, publication of single book or collected books. Thus, it will be meaningful to make diversifie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hitherto published journals by Toegye Institute. Through this analysis, we can reexamine the achievement and fruits made by Toegye Institute's publication of journal, and reflect

on its limitedness.

Key word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oegye Institute, Youngnam Culture Institute, *PHILOSOPHY OF KOREA,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Toegye Studies and Confucian Culture, Youngnam studies*

# <부록>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학술지(창간호-제59호) 게재논문 목록 및 기타 수록 내용

| 권호 | 발행일 | 필자 | 논문 제목 | | 비고 |
|---|---|---|---|---|---|
| 1 | 1973. 10.01 | 韓明洙 | 退溪의 <敬>에 關한 硏究 | | * <퇴계학연구특집><br>* 창간사(한명수 퇴계연구소장)/격려사(김영희 경북대학교 총장)/축사(박종홍) 수록<br>* 학술지 뒤표지에 학술지 제호 및 게재논문의 제목, 영문 표기<br>* 학술지의 퇴계 영문 표기: Toigye<br>* 퇴계연구소장 한명수 |
| | | 宋兢燮 | 李退溪의 四端七情說 考察 | | |
| | | 韓榮國 | 退溪 李滉의 時政論考 | | |
| | | 李秉烋 | 退溪 李滉의 家系와 生涯 | | |
| | | 徐首生 | 退溪 文學의 硏究 | | |
| 2 | 1974. 12.01 | 韓明洙 | 退溪哲學의 根本問題 | | * <퇴계학연구특집 Ⅱ> |
| | | 宋兢燮 | 李退溪의 理氣互發說 硏究 | | |
| | | 徐元燮 | 退溪의 陶山十二曲 硏究 | | |
| | | 宋兢燮 | 李退溪의 書院敎育論 考察 - 書院의 性格이 變化하는 過程을 中心으로 - | | |
| 3 | 1975. 12.01 | 韓明洙 | 續 退溪哲學의 根本問題 | | * <퇴계학연구특집 Ⅲ> |
| | | 宋兢燮 | 退溪哲學에 있어서의 理氣共在의 原則 | | |
| | | 徐元燮 | 退溪의 琴譜歌 硏究 | | |
| | | 柳奭佑 | 韓國의 儒敎哲學과 退溪先生의 地位 및 그 時代의 社會情勢 | | |
| | | 崔省默 | 退溪의 道德論에 關한 考察 | | |
| 4 | 1976. 05.18 | 韓明洙 | 李退溪의 哲學思想 | 기조강연 | * <제1회 퇴계사상연구 국제학술대회 특집호><br>* 대회사(한명수 퇴계연구소장)/치사(김영희 경북대학교 총장)/특별강연(安岡正篤) 수록<br>* 퇴계연구소장 한명수 |
| | | 錢穆 | 現代에 있어서의 退溪學에 대한 再認識 | | |
| | | 阿部吉雄 | 李退溪의 哲學的修養學과 日本儒學 | | |
| | | 李家源 | 退溪先生의 文學 | 연구발 | |
| | | 渡部學 | 陶山에서의 退溪先生의 人格的 敎 | | |

| | | | | | |
|---|---|---|---|---|---|
| | | | 育實動 | 표 | |
| | | 姜周鎭 | 退溪의 政治思想 | | |
| | | 宋兢燮 | 退溪哲學에서의 理動與否의 考察 | | |
| | | 山崎 道夫 | (특별기고)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 | |
| 5 | 1977. 03.01 | 韓明洙 | 退溪의 世界觀 - 倫理的 二元論 - | | * <퇴계학연구특집 V><br>* 부록: <王朝實錄拔萃 李退溪錄>(宋兢燮 編) |
| | | 宋兢燮 | 退溪哲學에서의 理氣關係와 理先問題 | | |
| | | 徐元燮 | 退溪의 勸義指路辭 硏究 | | |
| | | 尹炳泰 | 退溪書誌의 硏究 | | |
| | | 金鍾文 | 退溪의 理氣哲學體系와 倫理思想 | | |
| | | 崔省默 | 退溪學의 道德論的 解釋 | | |
| 6 | 1977. 06.10 | 韓明洙 | 理氣哲學과 李退溪의 世界觀 | 기조강연 | * <朱子學과 李退溪 國際學術會議 特輯>(일본 개최)<br>* 부록: 朱子學과 李退溪 國際學術會議(日本大會)開催趣旨書(「近世東アジアに於ける朱子學と李退溪」國際學術會議開催趣意書) |
| | | 何佑森 | 朱子學과 近世思想 | | |
| | | 阿部 吉雄 | 李退溪의 史的地位와 日本儒學과의 異質性 | | |
| | | Theodore de Bary | 新儒學 硏究의 現在와 未來 | | |
| | | 宋兢燮 | 李退溪哲學에 있어서의 理氣不可分의 意味 | 연구발표 | |
| | | 徐元燮 | 李退溪의 詩歌文學 - 主로 時調와 歌辭를 中心으로 - | | |
| | | 裵宗鎬 | 李退溪의 韓・中・日에 있어서의 地位 | | |
| | | 劉明鍾 | 李退溪의 異端批判을 通해 본 理氣說 | | |
| | | 黃錦鉉 | 朱子와 退溪의 實踐涵養에 대한 努力 | | |
| | | 友枝 龍太郎 | 存養省察과 窮理의 問題 - 朱子・退溪・退野・小楠의 系譜 - | | |
| | | 岡田 武彥 | 朱子와 現代 | | |
| 7 | 1978. | 韓明洙 | 退溪의 忠孝思想 | | * <퇴계학의 체계적 정 |

| | | | | |
|---|---|---|---|---|
| | 03.01 | 宋兢燮 | 退溪哲學에서의 理의 槪念 - 朱子說과의 比較 - | 립> 특집 |
| | | 徐元燮 | 退溪의 樂貧歌 硏究 | |
| | | 尹炳泰 | 退溪의 著書와 그 刊行 <朱子書節要를 中心으로> - 退溪書誌의 硏究 其二 - | |
| 8 | 1979. 12.24 | 韓明洙 | 現代社會에서의 傳統倫理와 李退溪 | * <자료>: (1) 退溪의 「論學書簡目錄」(宋兢燮)/(2) 東山과 그의 舊藏書 <附> 舊藏書 目錄(尹炳泰)<br>* <彙報>: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속 퇴계연구소 규정> 수록(규정에 따르면 1979년 12월 5일 이전에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br>* <편집위원> 명단 수록 시작<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 시작<br>* 편집: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속 퇴계연구소<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한명수 |
| | | 徐元燮 | 退溪의 相杵歌 硏究 | |
| | | 宋兢燮 | 退溪思想에서의 學의 槪念 | |
| | | 尹炳泰 | 退溪와 心經附註 - 退溪書誌의 硏究 其三 - | |
| | | 尹炳泰 | 心經附註 有後論本의 版本 - 退溪書誌의 硏究 其四 - | |
| 9 | 1980. 12.24 | 韓明洙 | 理氣動靜과 生成의 問題 | *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속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서돈각(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한명수 |
| | | 徐元燮 | 退溪의 孝友歌 硏究 | |
| | | 宋競燮 | 李退溪의 經書註解 硏究(一) - 門人에의 答書를 通하여 - | |
| | | 宋競燮 | 李退溪의 經書註解 硏究(二) | |
| | | 河永晳 | 程朱學 正統에서 본 退溪·高峯 論爭 檢討 | |
| | | 文暻鉉 | 麗末 性理學派의 形成 | |
| | | 金丁鎭 | 道德政治의 哲學的意義와 中庸九經衍義考察 - 晦齋李彦迪先生의 道學思想을 中心으로 - | |

| | | | | | |
|---|---|---|---|---|---|
| 10 | 1982. 12.24 | 高柄翊 | 傳統과 現代社會 | 기조연설 | * <제9회 국제학술세미나: 신유학(1981.10.30-31)> 발표논문 수록<br>* 간행사(한명수 퇴계연구소장, 1982.12.)/환영사(한명수 경북대학교 총장)<br>* 각 분과별 <토론 및 질의응답>, <전체토론> 수록<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속 퇴계연구소<br>* 발행인: 한명수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한명수 |
| | | 榎一雄 | 宋學의 國際的 背景 | | |
| | | Kah Kyung Cho | 新儒學 精神의 合理性 | | |
| | | 陳立夫 | 新儒學之現代意義 | | |
| | | 李完栽 | 性理學派의 形成 | 제 1 분과 | |
| | | 文暻鉉 | 三隱(李穡・鄭夢周・李崇仁)의 思想 | | |
| | | 權延雄 | 新儒學의 革命運動 | 제 2 분과 | |
| | | 柳正東 | 新儒學派의 節義思想 | | |
| | | Edward W. Wagner | 新儒學派의 社會的 背景 | | |
| | | 赤塚忠 | 退溪思想과 그의 現代的 意義 - 新儒學의 展望 - | 제 3 분과 | |
| | | 韓復智 | 新儒學政治思想的現代意義 | | |
| | | 尹絲淳 | 性理學 倫理思想의 現代的 意義 | | |
| | | 金光淳 | 天君實錄에 關한 一考察 | | |
| 11 | 1983. 12.24 | 文暻鉉 | 江右學派의 形成과 人脈 | 특집 | * <강우학풍과 학파의 형성과 전개> 특집<br>* 간행사(서원섭 퇴계연구소장)<br>* <부록>: 『韓國의 哲學』 총목차(창간호-제10호)<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부속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서원섭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서원섭 |
| | | 崔丞灝 | 南冥의 反躬體驗과 持敬居義思想의 硏究 | | |
| | | 金光淳 | 東岡의 生涯와 文學 | | |
| | | 徐元燮<br>李鴻鎭 | 南冥 曺植의 生涯와 文學 | | |
| | | 金得晩 | 「三壯士」三字 試評 | | |
| 12 | 1984. | 文暻鉉 | 麗末 節義派의 硏究 | | * 간행사(서원섭 퇴계연구 |

| | | | | |
|---|---|---|---|---|
| | 06.30 | 韓明洙<br>金光淳 | | 소장)<br>* <부록>: 『韓國의 哲學』 총목차(창간호-제11호)<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부속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서원섭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서원섭 |
| | | 文暻鉉<br>韓明洙<br>徐元燮<br>金燁<br>金光淳 | 朝鮮初期 節義派의 硏究 | |
| | | 宋昌漢 | 梁誠之의 斥佛論에 對하여 - 便宜三十二事 중 僧政을 中心으로 - | |
| | | 南富熙 | 儒敎界의 巴里長書事件과 3·1運動 | |
| 13 | 1985.<br>12.20 | 金光淳 | 寒岡의 生涯와 文學 | * 간행사(서원섭 퇴계연구소장)<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서원섭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서원섭 |
| | | 崔丞灝 | 寒岡의 持敬論 | |
| | | 權延雄 | 『檜淵及門諸賢錄』小考 | |
| | | 丁淳睦 | 寒岡 鄭逑의 敎學思想 | |
| | | 徐首生 | 寒岡 鄭逑의 禮學 | |
| | | 琴鍾友 | 寒岡의 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 |
| 14 | 1986.<br>12.31 | 河永晳 | 退溪의 性理學과 칸트哲學의 比較硏究 | * 간행사(서원섭 퇴계연구소장)<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서원섭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서원섭 |
| | | 崔丞灝 | 東洋倫理의 根本原理 | |
| | | 金光淳 | 滄溪의 生涯와 文學 | |
| | | 金文基 | 權好文의 詩歌 硏究 - 閒居十八曲과 獨樂八曲을 中心으로 - | |
| | | 金丁鎭 | 靜菴 趙光祖의 道學思想과 春秋義理精神 | |
| | | 徐首生 | 退溪의 漢詩 硏究(Ⅰ) | |
| 15 | 1987.<br>12.31 | 崔丞灝 | 退溪의 本體論에 對한 再照明 | * <자료>: 水雲歌辭에 對하여 - 解題와 原文紹介(金光淳)<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
| | | 徐首生 | 退栗의 佛敎觀 | |
| | | 李相魯 | 退溪 李滉先生의 敎育學說 硏究 | |
| | | 琴鍾友 | 退溪先生의 戊辰六條疏와 聖學十圖 및 同箚子의 政治思想에 관한 硏究 | |

| | | | | |
|---|---|---|---|---|
| | | 金文基 | 崔致遠의 四山碑銘 硏究 - 實態調査와 內容 및 文體分析을 中心으로 - |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천시권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최승호 |
| 16 | 1988.<br>12.31 | 崔丞灝 | 退溪의 養氣와 老莊의 養氣의 差異 | * <國際學術講演會抄>: 중국 내의 퇴계학 연구동향과 한국학의 현황(黃遺腹 中國 北京 中央民族大學 敎授)<br>* <부록>: 『韓國의 哲學』 총목차(창간호-제15호)<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천시권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최승호 |
| | | 琴鍾友 | 晦齋先生의 政治思想 硏究 | |
| | | 金光淳 | 金現感虎에 對하여 | |
| | | 金容燮 | 栗谷의 修養·經世論에 대한 理氣論的 根據 | |
| | | 金東協 | 「天君紀」 考察 | |
| | | 李魯亨 | 退溪의 哲學思想과 文學思想의 社會的 性格 | |
| 17 | 1989.<br>12.31 | 金光淳<br>文暻鉉<br>崔丞灝 | 蘇齋 盧守愼 硏究 - 文學·政治·思想을 中心으로 -<br>文學(金光淳)/政治(文暻鉉)/思想(崔丞灝) | 논문 3편 | * 간행사(김광순 퇴계연구소장)<br>* <제15회 학술발표회 강연초>: 『退溪先生全書』에 對하여(李源周 계명대학교수)<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천시권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김광순 |
| | | 琴鍾友<br>琴土樹 | 晦齋의 『中庸九經衍義』의 政治思想硏究 | |
| | | 李鴻鎭 | 李煜詞硏究 | |
| | | 權五鳳 | 聖學十圖의 中國 頒傳 - 1569年 聖節使 書狀官 西厓 柳成龍에 依하여 - | |
| | | 辛泰洙 | 「熱河日記」에 나타난 燕岩의 黃敎觀과 世界認識 - 「黃敎問答」, 「班禪始末」, 「札什倫布」를 中心으로 - | |
| | | 成潤淑 | 說文通訓定聲指例 | |
| 18 | 1990.<br>12.31 | 李東歡 | 退溪文學 硏究의 成果와 課題 | * 간행사(김광순 퇴계연구소장) |
| | | 琴章泰 | 퇴계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 철학적 영 | |

| | | | | |
|---|---|---|---|---|
| | | | 역 | * 제16차 퇴계학 학술발표대회 토론 내용 수록<br>* <퇴계문학 연구논저 목록> 수록<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김익동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김광순 |
| | | 金鍾文 | 李退溪의 敬思想과 C.O.Schrag 解釋學과의 比較理解 | |
| | | 琴鍾友<br>琴士樹 | 晦齋의 「講學明理之功」의 政治思想硏究 | |
| | | 宋彙七 | 明代儒學의 主氣論的 展開(Ⅰ) | |
| | | 金光淳 | 韓中文學作品中夢的樣相和意味指向硏究 - 以「調信傳」和「枕中記」爲主 - | |
| | | 張閏洙 | 《墨子哲學》 방법론 小考 | |
| | | 陳甲坤 | 洪萬宗 詩論의 一考察 - 明代 前後七子의 詩論과 關聯하여 - | |
| | | 洪承和 | 修己治人의 構造로 본 許生의 삶 | |
| | | 琴士樹 | 中山 孫文의 民族主義 思想의 人間觀에 관한 硏究 | |
| 19 | 1991.<br>11.30 | 丁淳睦 |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硏究 | * 간행사(김광순 퇴계연구소장)<br>* <退溪先生 國譯年譜> 수록<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김익동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퇴계연구소장 김광순 |
| | | 金世漢 | 日本에서의 退溪學 硏究動向과 成果 | |
| | | 송휘칠 | 歐美諸國에서의 退溪學 硏究動向과 그 成果 | |
| | | 黃渭周 | 文館詞林의 實體 | |
| | | 鄭炳浩 | 金鰲新話에 나타난 挿入詩歌의 樣相과 機能 | |
| | | 琴坰樹 | 養浩然之氣 硏究 | |
| | | 金容燮 | 「淮南子」의 구성과 문제의식 | |
| | | 張閏洙 | 「太極圖說」에 관한 朱・陸 論辯 | |
| | | 金光淳 | 退溪先生 國譯年譜에 對하여 | |
| 20 | 1992.<br>12.31 | 金基鉉 | 退溪哲學 연구의 반성과 과제 | * <휘보> 수록 시작<br>* <수증도서> 목록 수록 시작<br>*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김익동 (경북대 |
| | | 尹天根 | 이황철학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 |
| | | 金丁鎭<br>李永慶 | 退溪 太極槪念의 倫理的 志向性 | |
| | | 琴鍾友<br>琴士樹 | 乾坤卦 硏究 | |

| | | | | |
|---|---|---|---|---|
| | | 張閏洙 | 張載의 우주론 - 「正蒙」을 중심으로 하여 - | 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소장 李秉烋 |
| | | 蔡龍福 | 蘇齋 盧守愼의 思想과 學問態度 | |
| | | 鄭羽洛 | 南冥思想의 形成背景과 그 文學的 表出의 한 斷面 | |
| | | 鄭根亨 | 『文心雕龍』作家, 作品風格論考 | |
| | | 李承姸 | 조선조에 있어서 『주자가례』의 '절대성'과 그 '변용'의 논리 | |
| | | 김태오 | 雅亭의 아동관과 그 교육방안 | |
| 21 | 1993.<br>12.31 | 李樹健 | 朝鮮朝 嶺南學派의 형성과 그 전개 | *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김익동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소장 李秉烋 |
| | | 宋彙七 | 羅整庵의 「困知記」와 奇高峯・李栗谷의 主氣論 | |
| | | 鄭羽洛 | 退溪 認識論의 文學的 反應과 想像力의 構造 | |
| | | 金鍾錫 | 退溪學 연구분야의 새로운 논의 : 『心經附註』와 心學 | |
| | | 李承姸 | 日本의 『朱子家禮』 수용과정에 관한 一考察 | |
| | | 金時晃 | 義城金氏 火餘世系 | |
| | | 全在康 | 申欽의 散文과 文藝意識 | |
| | | 陳甲坤 | 甁窩 李衡祥의 詩經意識에 나타난 反朱子的 要素 | |
| | | 김태오 | 茶山의 목민정신과 그 교육방안 | |
| 22 | 1994.<br>12.31 | 鄭萬祚 | 17世紀 政治史의 理解方向 | * 학술지 출판정보 수록<br>* 편집: 경북대학교 부설 퇴계연구소<br>* 발행인: 박찬석 (경북대학교 총장)<br>* 발행: 경북대학교 출판부<br>* 소장 孫炳海 |
| | | 李迎春 | 17世紀 禮訟 硏究의 現況과 反省 | |
| | | 金光淳 | 陶山十二曲에 나타난 自然觀과 人間觀 | |
| | | 金時晃 | 喪禮 五服制度 硏究 | |
| | | 金文基 | 女性義兵 尹熙順의 歌辭 考察 | |
| | | 張師亨 | 磻溪를 通해 본 實學의 性格과 哲學的 思惟土臺 | |
| | | 宋彙七 | 近世日本의 朱子學受容과 그 變容에 관하여 | |
| | | 李先行 | 荀子에서의 自然과 人間 | |

| | | | | | |
|---|---|---|---|---|---|
| | | 張稔穰 | 儒家倫理道德與古代小說藝術形象 | | |
| | | 蔡守煥 | 平康蔡氏族譜之始祖淵源考 | | |
| 23 | 1995. 12.31 | 李樹健 | 西厓 柳成龍의 學問과 學脈 | 특집 | * <특집>: 西厓 柳成龍의 學問과 思想<br>* <휘보> 없음<br>* 학술지 출판정보는 제22호 같음<br>* 소장 宋彙七 |
| | | 금장태 | 西厓 柳成龍의 哲學思想 | | |
| | | 金昊鍾 | 西厓 柳成龍의 政治思想 - 政治運營과 人才登用을 中心으로 - | | |
| | | 金時晃 | 西厓 柳(成龍) 先生의 文學 世界 | | |
| | | 田尻 裕一郎 | 山崎闇齋의 易學과 李退溪의 啓蒙傳疑 | | |
| | | 嚴錫仁 | 山崎闇齋와 李退溪의 理氣論 | | |
| | | 金鍾錫 | 退溪哲學 硏究의 현황과 課題 | | |
| | | 崔在穆 | 韓國의 東아시아 思想硏究 | | |
| | | 黑住眞 | 日本에 있어서 新儒學 硏究 | | |
| | | 孫歌 | 中國思想史 硏究의 方法論 問題 | | |
| 24 | 1996. 12.31 | 鄭萬祚 | 月川 趙穆의 生涯와 學問 | 특집 | * <특집>: 월천 조목의 學問과 思想<br>* <부록>: 『韓國의 哲學』 총목차(창간호-제23호)<br>* <휘보> 없음<br>* 학술지 출판정보 변경<br>* 편집・발행: 송휘칠<br>* 발행처: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br>* 소장 宋彙七 |
| | | 李鍾虎 | 月川 趙穆의 文學世界 - 漢詩作品을 中心으로 - | | |
| | | 尹絲淳 | 月川(趙穆)의 朱子學的 心學 | | |
| | | 李承姸 | 조선조 『朱子家禮』 연구를 위한 提言 - 주자 예론을 중심으로 - | | |
| | | 張閏洙 | 退溪 '敬' 사상의 구조와 윤리의식 | | |
| | | 鄭羽洛 | 南冥文學에서의 現實主義 形成背景에 관한 硏究 | | |
| | | 方仁 | 신라 불교계의 空有論爭과 그 意義 | | |
| | | 宋彙七 | 근세 日本의 國學派 형성과 그 전개 | | |
| 25 | 1997. 12.31 | 李秉烋 | 艮齋 李德弘의 時代와 生涯 | 특집 | * <특집>: 艮齋 李德弘의 學問과 思想<br>* <부록>: 1. 『퇴계학 연구논총』 목록/2. 97年度 硏究所 彙報<br>* 소장 宋彙七 |
| | | 李完栽 | 艮齋의 性理學世界 - 辨을 중심으로 - | | |
| | | 李東歡 | 艮齋 李德弘의 文學意境 | | |
| | | 李澤徽 | 艮齋 李德弘의 政治思想 | | |
| | | 沈慶昊 | 退溪의 序跋文 | | |
| | | 李承姸 | 南溪 朴世采의 예학에 관한 試論 | | |
| | | 金時晃 | 鶴峯 金(誠一)先生의 錦城錄에 對하여 | | |
| | | 李鎬澈 | 삼봉집(三峯集)의 사회경제사상 | | |

| | | | | | |
|---|---|---|---|---|---|
| 26 | 1998.<br>12.31 | 申龜鉉 | 芝山 曺好益의 哲學思想 | 특집 | * <특집>: 芝山 曺好益의 學問과 思想<br>* <휘보> 없음<br>* 학술지의 '퇴계' 영문 표기 변경: 'Toigye'에서 'Toegye'로<br>* 소장 宋彙七 |
| | | 高英津 | 芝山 曺好益의 禮學思想 | | |
| | | 黃渭周 | 芝山 曺好益의 詩文學 世界 | | |
| | | 李章熙 | 芝山 曺好益과 壬辰矮亂 - 義兵活動을 中心으로 - | | |
| | | 宋彙七 | 退溪學의 性格과 退溪學派 | | |
| | | 呂紹綱 | 退溪易學初論 | | |
| | | 李元烈 | 退溪의 經濟意識에 대한 一考察 | | |
| | | 金鍾錫 |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第子의 범위 - 부록: <退溪門人 師承關係圖表> | | |
| | | 李永慶 | 栗谷의 心性論에 있어서 善惡과 道德意志의 문제 | | |
| | | 金時晃 | 大瓠 李(運鎬)先生의 生涯와 思想 | | |
| 27 | 1999.<br>12.31 | 李樹健 | 退溪와 南冥의 역사적 위상 | 특집 | * <특집>: 퇴계와 남명의 사상적 특징<br>* <휘보> 없음<br>* 소장 宋彙七 |
| | | 김기현 | 퇴계의 인간학과 퇴계철학 | | |
| | | 崔錫起 | 南冥思想의 本質과 特色 | | |
| | | 李鍾虎 | 退溪의 詩歌文學論과 文藝認識論의 爭點 | | |
| | | 鄭羽洛 | 南冥文學 硏究의 成果와 課題 - 退溪文學과의 比較를 겸하여 - | | |
| | | 朴洋子 | 退溪의 書院교육의 특성 | | |
| | | 정진영 | 南冥 曺植의 現實認識과 對應 | | |
| | | 薛錫圭 | 16세기 嶺南學派의 政治哲學 形成과 朋黨論 | | |
| | | 성해준 | 일본 『명심보감』의 수용에 관하여 | | |
| 28 | 2000.<br>12.31 | 金鍾錫 |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 제17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 * <특집>: 退溪學派의 地域的 展開<br>* 소장 金時晃 |
| | | 鄭萬祚 | 月川 趙穆과 禮安地城의 退溪學脈 | | |
| | | 權五榮 | 鶴峯 金誠一과 安東지역의 退溪學脈 | | |
| | | 金昊鍾 | 西厓 柳成龍과 安東・尙州 지 | | |

| | | | | | |
|---|---|---|---|---|---|
| | | | 역의 退溪學脈 | | |
| | | 禹仁秀 | 旅軒 張顯光과 善山地城의 退溪學脈 | 제18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 | |
| | | 黃渭周 | 醴泉地城의 退溪學脈 | | |
| | | 崔在穆 | 愚伏 鄭經世와 尙州지역의 퇴계학맥 | | |
| | | 朴洪植 | 葛庵 李玄逸과 寧海지역의 퇴계학맥 | | |
| | | 崔英成 | 崔致遠의 僧傳 撰述과 그 思想的 含意 -『法藏和尙傳』과『普德和尙傳』을 중심으로 - | | |
| | | 成海俊 | 日本에서의『明心寶鑑』과『太上感應篇』의 思想上의 比較檢討 | | |
| | | 宋喜準 | 18세기 永川 地城의『家禮』註釋書에 대하여 | | |
| | | 鄭基先 | 慧超『往五天竺國傳』小考 | | |
| 29 | 2001.06.30 | 金時晃 | 百弗庵 崔興遠 先生의 生涯와 思想 | 기획 Ⅰ | * <기획 Ⅰ>: 百弗庵 崔興遠의 學問과 思想<br>* <기획 Ⅱ>: 退溪學脈의 地域的 展開(Ⅲ)<br>* 소장 金時晃 |
| | | 金榮淑 | 百弗庵 崔興遠 詩의 道學文學的 樣相과 特性 | | |
| | | 鄭震英 | 百弗庵 崔興遠의 學問과 鄕約 | | |
| | | 李在喆 | 百弗庵 崔興遠의 時代와 그의 現實對應 | | |
| | | 張閏洙 | 百弗庵 崔興遠의 性理學的 삶과 思惟 | | |
| | | 崔英成 | 惺齋 琴蘭秀의 '學退溪' 精神과 '主敬涵養' 工夫 | 기획 Ⅱ | |
| | | 崔斗植 | 敬堂 張興孝의 思想과 文學 - 一元消長圖를 中心으로 - | | |
| | | 洪在烋 | 修巖 柳袗과「壬辰錄」考 | | |
| | | 吳龍源 | 藥峯 金克一의 文藝意識과 詩世界 | | |
| | | 蔣長棟 | 中國韻文縱向發展律槪論 | | |
| 30 | 2001.12.31 | 金時晃 | 惟一齋 金彦璣 先生의 生涯와 學問 및 敎育 | 기획 | * <기획 Ⅰ>: 惟一齋 金彦璣의 學問과 思想 |

| | | | | | |
|---|---|---|---|---|---|
| | | 朴英鎬 | 惟一齋 金彦璣의 삶과 文學世界 | Ⅰ | * <기획 Ⅱ>: 退溪學의 地域的 展開(Ⅳ)<br>* 소장 金時晃 |
| | | 薛錫圭 | 惟一齋 金彦璣의 學風과 學脈 | | |
| | | 金鐘錫 | 葛峯 金得研의 學問과 思想 | | |
| | | 李九義 | 葛峯 金得研의 문학 세계 | | |
| | | 黃浿江 | 溪巖 金坽의 삶과 文學 | 기획 Ⅱ | |
| | | 丁淳佑 | 星州地城의 退溪學脈 - 寒岡과 東岡을 中心으로 - | | |
| | | 洪元植 | 퇴계학의 南傳과 한주학파 | | |
| | | 望月高明 | 退溪學の基層 - 回心ということ - | | |
| | | 金時晃 | 錦溪 黃俊良 先生과 豊基地城 退溪學脈 | | |
| 31 | 2002.08.31 | 姜玟求 | 龜巖 李楨과 泗川・晋州地域의 退溪學脈 - 李楨의 性理學 研鑽과 文學을 중심으로 - | 기획 논문 | * 학술지 제호 변경:『韓國의 哲學』에서 『退溪學과 韓國文化』로<br>* <간행사> 수록<br>* <기획논문>: 퇴계학파의 지역적 전개(Ⅴ)<br>* 각 논문 <참고문헌> 말미에 <투고일, 심사시작일, 심사완료일> 기재 시작<br>* 각 논문 말미에 <외국어 초록> 수록 시작<br>* 학술지 말미에 <국문초록> 일괄수록 시작<br>* <부록>에 <『退溪學과 韓國文化』 간행 규정> 수록<br>* <부록>에 <퇴계연구소 임원・편집위원> 명단 수록<br>(편집위원은 전원 타교 학자로 구성되어 있음)<br>* 소장 張東翼 |
| | | 姜求律 | 篁谷 李偁의 生涯와 詩世界 研究 | | |
| | | 鄭景柱 | 밀양의 퇴계 학맥 | | |
| | | 河政承 | 演雅體 漢詩 研究 - 15・16세기를 중심으로 - | | |
| | | 李永慶 | 退溪 人性論에 있어서 善惡과 道德意志 | | |
| | | 張東翼 | 1596년(선조29) 通信副使 朴弘長의 生涯와 그의 東槎錄 | | |
| | | 鄭羽洛 | 寒居 崔后大의 文學世界, 그 日常의 形象에 관하여 | | |
| | | 成海俊 | 『명심보감』 스페인어판 번역 연구 -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 |
| | | 金正和 | 韓・日 固有詩 律格 形成에 관한 比較學的 研究 | | |
| 32 | 2003.02.28 | 윤사순 | 16세기 조선 유교사회와 竹川(朴光前)의 선비정신 | 기획 | * <기획논문>: 竹川 朴光前의 學問과 思想 |

| | | | | | |
|---|---|---|---|---|---|
| | | 劉明鍾 | 竹川 朴光前의 人品과 性理思想 | 논문 | * <부록>에 <『退溪學과 韓國文化』 간행 규정>/<『退溪學과 韓國文化』 투고 규정>/<『退溪學과 韓國文化』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 규정> 수록<br>* 소장 張東翼 |
| | | 李完栽 | 退溪先生의 學統과 竹川先生의 位相 | | |
| | | 고영진 | 이황학맥의 호남 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 | |
| | | 柳鐸一 |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位置 | | |
| | | 趙湲來 | 朴光前의 擧義와 그 一家의 의병운동 | | |
| | | 김대현 | 竹川 朴光前의 文學 硏究 | | |
| | | 朴性鳳 | 『竹川集』 解題 | | |
| | | 金基駜 | 退溪先生 胎生風水 硏究 - 朱子 高祖母墓와 比較分析을 通하여 - | | |
| | | 고연희 | 17세기 男性의 女性再現 - 김창협의 여성 애제문을 중심으로 - | | |
| | | 김정화 | 時調의 形態的 特質 | | |
| 33 | 2003.08.31 | 황위주 | 서울·京畿地域의 退溪門人과 그 性格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퇴계학파의 지역적 전개(Ⅵ) - 近畿地域의 退溪學派<br>* 소장 朴英鎬 |
| | | 안병걸 | 眉叟 許穆과 嶺南學派 | | |
| | | 김문식 | 星湖 李瀷의 箕子 인식 | | |
| | | 심경호 | 退溪와 茶山 - 문헌학의 연속성과 차별성 - | | |
| | | 유권종 | 퇴계와 다산의 심성론 비교 | | |
| | | 장동익 | 日本의 日記資料에 수록된 高麗王朝 關係 記事의 硏究 | | |
| | | 이구의 | 葛峯 金得硏의 '元朝'詩 攷 | | |
| | | 김영주 | 藥泉 南九萬의 文學論 硏究 | | |
| | | 이군선 | 冠巖 洪敬謨의 中國文人과의 交遊와 그 樣相 - 2차 연행을 중심으로 - | | |
| | | 김종철 | 『東文選』 문체 분류의 성격 | | |
| 34 | 2004.02.29 | 김광순 | 退溪學 硏究動向과 退溪의 處世觀 | | * 각 논문 본문 앞에 <국문초록> 수록 시작<br>* <부록>에 <『退溪學과 |
| | | 이군선 | 傳記資料에 나타난 書名을 중심으로 본 퇴계 학맥의 전개 | | |

| | | | | | |
|---|---|---|---|---|---|
| | | 김영숙 | 영사악부의 「薛氏女」, 「都彌妻」傳의 受容·傳承 양상 | | 韓國文化』 논문심사 보고서> 양식 수록<br>* 소장 朴英鎬 |
| | | 윤상림 | 益齋 李齊賢 墓誌의 서술 방식 | | |
| | | 정우락 | 16세기 士林派 作家들의 事物觀과 文學精神 硏究 - 林薰·李滉·曺植의 경우를 중심으로 - | | |
| | | 이정화 | 鶴峯의 樓亭詩 硏究 | | |
| | | 최영성 | 安邦俊의 義理思想과 精神史的 意義 - '道學節義 不是兩岐'를 중심으로 - | | |
| | | 최은주 | 金萬基·金萬重의 『詩選』 편찬에 대하여 | | |
| | | 김영주 | 西坡 吳道一의 文學論 硏究 | | |
| 35-1 | 2004.08.31 | 박영호 | 韓國에서의 漢文學 硏究 動向 | 특집·한국 | * 앞표지에 '硏究所 創設 30週年 紀念特輯號 - 21世紀 社會發展과 東北亞文化 -' 표기 있음<br>* <발간사>(소장 박영호) 있음<br>* <특집>: 21세기 사회발전과 동북아문화<br>*<ISSN 1225-4061> 기재 시작<br>* 소장 朴英鎬 |
| | | 김영주 | 朝鮮後期 少論系 文學理論의 特徵 硏究(Ⅰ) | | |
| | | 강민구 | 19세기 朝鮮人의 技術觀과 記述意識 | | |
| | | 이군선 | 관암 홍경모의 평양에 대한 인식 -고증학적 학문태도와 관련하여 - | | |
| | | 임완혁 | 李朝後期 3大野談集의 編纂意識 | | |
| | | 김기현 | 「아리랑」 노래의 형성과 전개 | | |
| | | 문일환 | 동북아 한문학의 정립과 그 문화적 의미 | 특집·중국 | |
| | | 채미화 | 허균의 정감미학관 연구 | | |
| | | 우상열 | 이백과 정철 비교 散論 | | |
| | | 정일남 | 초정 박제가의 題畵詩 연구 - 제재의 확대와 意境창조를 중심으로 - | | |
| | | 김호웅 | 1920~1930년대 조선문학과 상해 - 조선 근대문학자의 중국관과 근대인식을 중심으로 - | | |
| | | 리득춘 | 조선어 어휘의 2원체계와 漢源詞 | | |
| | | 장광군 |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 문법교육을 중심으로 - | | |

| | | | | | |
|---|---|---|---|---|---|
| 35-2 | 2004.08.31 | 정성철 | 조선철학사 연구의 방법론에 대하여 | 특집·북한 | * 앞표지에 '硏究所 創設 30週年 紀念特輯號 - 21世紀 社會發展과 東北亞文化 -' 표기 있음<br>(2004년 봄 한국, 북한, 중국 공동으로 중국 연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물로 특집호를 간행함)<br>* <특집>: 21세기 사회발전과 동북아문화<br><br>* 소장 朴英鎬 |
| | | 한명환 | 고대일본의 철학사상 발전에 준 조선민족의 영향 | | |
| | | 리성 | 림춘의 창작과 의인전기체 산문 | | |
| | | 변정암 | 리황의 철학사상에 대하여 | | |
| | | 량만석 | 서경덕의 기일원론 철학사상에 대하여 | | |
| | | 한중모 | 신채호의 문학의 기본특징 | | |
| | | 리재선 | 현 시기 조선에서 널리 장려되고 있는 민족명절과 민속놀이에 대하여 | | |
| | | 김화종 | 주체사상의 견지에서 본 유교사상의 평가 문제 | | |
| | | 고철훈 | 문학의 주체성과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 | | |
| | | 최태권 | 우리나라 민족고전의 실태와 민족고전학의 건설에 대하여 | | |
| | | 고철훈 | 장편소설『피바다』에 대하여 | | |
| | | 조희승 | 일본의 력사교과서 왜곡책동과 군국주의 부활 | | |
| | | 전국봉 | 사회과학원에서의 과학후비 육성경험 | | |
| | | 이구의 | 崔致遠의 '眞鑑禪師碑銘'攷 | | |
| | | 이현숙 | 나말여초 최치원과 최언위 | | |
| | | 김문기<br>안태현 | 聞慶地方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연구 | | |
| | | 서신혜 | 景玉 李簠의 서원교육관과 그 시대적 의미 | | |
| | | 우인수 | 塤叟 鄭萬陽(1664~1730)의 土地制度改革論 | | |
| 36 | 2005.02.28 | 김인철 | 退溪와 芝山의『周易』解釋 | 기획논 | * <기획논문>: 退溪學派經學의 特徵과 史的展開<br>* 학술지 표지에 <ISSN |
| | | 심경호 | 退溪의『詩經』해석과 그 특징 | | |
| | | 유권종 | 退溪學派의 『禮記』 해석에 대한 | | |

| | | | | | |
|---|---|---|---|---|---|
| | | | 고찰 | 문 | 1225-4061> 기재 시작<br>* 소장 朴英鎬 |
| | | 최석기 | 退溪의『大學』解釋과 그 意味 | | |
| | | 엄연석 | 退溪의『中庸』解釋과 그 특징 | | |
| | | 이영호 | 退溪『論語』解釋의 經學的 特徵과 그 繼承樣相 | | |
| | | 홍원식 | 退溪學과『孟子』, 그리고 孟子 | | |
| | | 조기호 |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의 理解와 應用 - 體質醫學的 應用을 中心으로 - | | |
| | | 최영성 | 白雲 李奎報 연구의 回顧와 課題 - 철학사상 연구의 측면에서 - | | |
| | | 성해준 | 동아시아의『明心寶鑑』연구 - 중국·한국·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 | |
| | | 손흥철 | 동서양 여성철학의 현장탐구: 任允摯堂의 성리학과 버지니아 울프의 페미니즘 - 세계화와 Eco-feminism을 중심으로 - | | |
| | | 김석배 | 『昇平曲』연구 | | |
| 37 | 2005.<br>08.31 | 김광순 | (기조 강연) 영남지역 퇴계학맥과 그 문화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嶺南地域의 退溪學脈과 그 文化<br>* 소장 李世東 |
| | | 이군선 | 퇴계학파 학문방법에 대한 일고찰 - 梅軒 琴輔의 「陶山記考證」과 「靜存齋箴考證」을 중심으로 - | | |
| | | 김인철 | 退溪學派 文集所載 箴銘類의 修己指向的 性格 | | |
| | | 이정화 | 退溪門人의 學退溪 精神과 樓亭題詠에 反影된 繼承樣相 | | |
| | | 서신혜 | 善山 지방 書院의 毁撤과 <烏有居士傳> | | |
| | | 유영옥 | 鶴峯 金誠一의 祭禮 意識과 行禮 | | |
| | | 오용원 | 甁窩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硏究 | | |
| | | 정우락 |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색 - 한국학 통합·연계형 교육과 현장자료 수용을 중심으로 - | | |

| | | | | | |
|---|---|---|---|---|---|
| | | 박용국 | 新羅 憲德王代 金憲昌의 亂과 晉州地域 | | |
| | | 이재철 | 17세기 朝鮮政治史에서 名分과 利害 | | |
| | | 구본욱 | 杜門洞 七十二賢과 松隱 具鴻의 節義精神 | | |
| | | 정태식 | 정치와 종교 : 조선왕조 초기 성리학적 정사논쟁(正邪論爭)의 정치적 전개과정과 제도화과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 | |
| 38 | 2006.<br>02.28 | 정우락 | 李震相의 山水興趣와 그 文學思想의 哲學的 基底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寒洲 李震相의 삶과 學問世界<br>* <자료 소개>: 朝鮮後期에 제작된 『宣祖大王實記』(장동익)<br>* 소장 李世東 |
| | | 권오영 | 寒洲 理學의 傳統과 그 사상사적 意義 | | |
| | | 우인수 | 『畝忠錄』을 통해 본 寒洲 李震相의 國政改革論 | | |
| | | 이영호 | 寒洲 經學의 特徵과 그 經學史的 位相 - 『論語箚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 |
| | | 이형성 | 寒洲 性理學에 있어서 '主宰性' 重視와 그 意義 | | |
| | | 홍원식 | 한주 이진상의 성리설과 그 계승 | | |
| | | 이홍진 | 蘇東坡詞 硏究 | | |
| | | 조규백 | 朝鮮時代文人對蘇東坡詩文的"受容"及其蘇東坡觀 | | |
| | | 김영숙 | 安鼎福의 詠史詩에 나타난 역사·문학성과 역사의식 | | |
| | | 천병준 | 退溪의 「聖學十圖」에 나타난 主敬의 眞意 | | |
| 39 | 2006.<br>08.31 | 금장태 | (기조강연) 凝窩 李源祚의 道學사상과 시대의식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凝窩 李源祚의 삶과 學問世界<br>* 소장 李世東 |
| | | 허권수 | 凝窩 李源祚의 학문과 寒洲에 대한 영향 | | |
| | | 이상하 | 한국 性理學 七情理發說의 계보상에서의 凝窩 李源祚 | | |
| | | 강구율 | 凝窩 李源祚의 生涯와 詩世界의 | | |

| | | | | | |
|---|---|---|---|---|---|
| | | | 몇 局面 | | |
| | | 배재홍 | 凝窩 李源祚의 官歷과 三政 釐正 방안 | | |
| | | 김문기<br>김용만 | 상주 동학교와 동학가사 책판 및 판본 연구 | | |
| | | 정우락 | 정인홍의 비평정신과 창작의 실제 | | |
| | | 김영주 | 塤叟 鄭萬陽과 篪叟 鄭葵陽의 文學觀 一考 | | |
| | | 성해준 | 한국『명심보감』의 전파와 수용 양상에 관하여 | | |
| | | 박세욱 | 琉璃의 동아시아 전파에 관한 一考察 | | |
| | | 조규백 | 고려시대 문인의 蘇東坡 詩文 受容 및 그 意義(1) | | |
| | | 임종진 | 曾點의 사상적 좌표에 대한 검토 – 朱子의 관점을 중심으로 – | | |
| | | 정태식 | 基督敎社會主義의 韓國的 受容에 對한 一考察 – 崔文植 牧師의 思想과 實踐을 中心으로 – | | |
| 40 | 2007.<br>02.28 | 허권수 | 죽유(竹牖) 오운(吳澐) – 강좌(江左)와 강우(江右) 문화의 융합자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竹牖 吳澐의 삶과 學問世界<br>* 소장 李世東 |
| | | 박인호 | 『동사찬요』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지리인식 | | |
| | | 김용만 | 吳澐 宗家의 古文書 硏究 | | |
| | | 설석규 | 16세기 嶺南士林의 分化와 吳澐의 역할 | | |
| | | 정우락 | 吳澐의 詩世界에 나타난 興과 浪漫主義的 性格 | | |
| | | 조규백 | 고려시대 문인의 蘇東坡 詩文 受容 및 그 意義(2) | | |
| | | 권도경 | 송징 전설의 형성과정과 계열 분화에 관한 연구 – 장도 당제 계열과 고려 삼별초 장군 계열에 나타난 송장군 전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 | | 박세욱 | 客家 文人과의 첫 만남 : 陽坡 鄭太和와 魏際瑞 | | |
| | | 장동익 | 金方慶의 生涯와 行蹟 | | |
| | | 김혁 | 19세기 사족층의 '先塋景觀' 조성과 그 의미 | | |
| | | 이형성 | 漢文敎育에서 '直'에 대한 意味的 考察 -『周易』의 直字를 중심으로 - | | |
| 41 | 2007. 08.31 | 임종진 | 朱子와 退溪의 性理思想 比較 - 張伯行의『續近思錄』과 星湖 李瀷의『李子粹語』를 중심으로 -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退溪思想의 儒學史的 座標<br>* <부록>에 <『퇴계학과 한국문화』 연구 윤리 규정> 수록<br>* 소장 金文基 |
| | | 최재목 | 退溪의 '敬의 心學'과 陽明의 '良知心學' - 『退溪先生言行錄』과『傳習錄』의 '言行' 비교를 겸해서 - | | |
| | | 손영식 | 이황과 조식 사상의 쟁점 몇 가지 | | |
| | | 金璟鎬 | 퇴계와 율곡에 대한 재해석 - 율곡의 퇴계 비판을 중심으로 - | | |
| | | 金洛眞 | 李滉과 奇大升의 理氣 心性論에 나타난 문제의식 검토 | | |
| | | 徐信惠 | 勿齋 宋淳夔의 <錢神傳> 연구 | | |
| | | 이종호 | 퇴계 이황의 자연미 수용과 산수미학 | | |
| | | 정우락 | 申維翰의 文學思想과 그 詩世界의 意味構造 | | |
| | | 박용국 | 영남지역 선비문화의 초등역사교육 활용 - '남명선비문화축제'를 중심으로 - | | |
| | | 오이환 | 광해군 초기의 정인홍 | | |
| | | 千昞俊 | 王夫之의 史論에서의 政制 改革論 | | |
| 42 | 2008. 02.28 | 朴天秀 | 考古學을 통해 본 大伽耶史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역사 속의 고령과 고령 사람<br>* 소장 金文基 |
| | | 李泳鎬 | 大加耶 멸망과 高靈地域의 변화 | | |
| | | 설석규 | 조선시대 嶺南의 學風과 高靈士林의 動向 | | |
| | | 金康植 | 임진왜란 시기 고령 지역의 의병 | | |

| | | | | | |
|---|---|---|---|---|---|
| | | | 운동과 의미 | | |
| | | 우인수 | 高靈 梅村洞約의 특징과 洞民의 결속 | | |
| | | 김희곤 | 김상덕(金尙德)의 독립운동 | | |
| | | 김문기 |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 | |
| | | 권도경 | 소서노 신화의 위계 변동 체계 및 전설화 양상과 그 의미 | | |
| | | 張東翼 | 10세기 고려왕조의 대외관계 기사에 대한 補完 | | |
| | | 손영식 | 한원진의 리발 부정 방식인 구절주의와 관점주의 비판 – 『주자 언론 동이고』에 나오는 4-7 리발-기발 논증을 중심으로 – | | |
| | | 김용수 | 魏晋 玄學의 學問 方法論 – 名理와 玄理를 중심으로 – | | |
| 43 | 2008.08.31 | 채상식 | 고령의 반룡사와 體元의 화엄사상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고령지역 思想의 특징과 史的 展開<br>* 소장 金文基 |
| | | 정우락 | 江岸學과 高靈 유학에 대한 試論 | | |
| | | 임종진 | 晩求 李種杞의 성리학적 입장에 대한 검토 - 寒洲學派와의 논변을 중심으로 - | | |
| | | 김종석 | 성와 이인재의 유교개혁사상 | | |
| | | 성동환 | 풍수사상으로 살펴본 고령지역의 풍수지리학적 특성 | | |
| | | 김문기 |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 | |
| | | 이세동 | 弘窩 李斗勳의 삶과 학문 | | |
| | | 왕매용 | <황부인전> 구조 연구 - 과제 제시와 해결 구조를 중심으로 - | | |
| | | 정동락 | 高靈客舍 연구 | | |
| | | 부남철 | 정도전의 유교국가론과『周禮』 | | |
| 44 | 2009.02.28 | 우인수 | 溪堂 柳疇睦과 閩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溪堂・閩山의 學問과 思想<br>* 소장 金文基 |
| | | 홍원식 | 서애학파와 계당 유주목의 성리설 | | |
| | | 도민재 | 溪堂 柳疇睦의 禮學思想 | | |

| | | | | | |
|---|---|---|---|---|---|
| | | 황위주 | 溪堂과 閩山의 漢詩 創作傾向 | | |
| | | 설석규 | 조선시대 嶺南儒生의 公論形成과 柳道洙의 萬人疏 | | |
| | | 정우락 |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 | |
| | | 장동익 | 安珦의 生涯와 行蹟 | | |
| | | 이문기 | 文獻으로 본 蘿井 | | |
| | | 이세동 | 龜巖 李楨의 中庸學 | | |
| | | 이승연 | 改葬禮에 관한 小考 - 정만양·정규양 형제의 『改葬備要』를 중심으로 - | | |
| | | 임헌규 | 朱子의 『大學』관에 대한 茶山의 비판(2) - '三綱領'과 '格物致知'를 중심으로 - | | |
| 45 | 2009. 08.31 | 이지하 |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가치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고령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br>* 소장 金文基 |
| | | 오용원 | 高靈 樓亭의 文學的 解釋과 空間機能 | | |
| | | 李世東 | 南皐 朴應衡의 삶과 詩 | | |
| | | 鄭時烈 | 挹翠軒 朴閭의 漢詩 硏究 | | |
| | | 권오경 | 경북 고령군 민요의 전승양상과 갈래별 특징 | | |
| | | 박현수 | 생태주의 사유의 기원으로서 고향의식 - 이하석론 | | |
| | | 金文基 | 陶山九曲詩의 作品 현황과 創作 경향 | | |
| | | 박용찬 | 고령문학의 공간과 장소성 | | |
| | | 최재호 | 보급 형태로 살펴 본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 문제 試論 | | |
| | | 설석규 | 退溪學派의 분화와 屛虎是非(II) - 廬江(虎溪)書院 置廢 顚末 - | | |
| | | 성해준 | 『明心寶鑑』과 佛敎와의 關係 | | |
| | | 임헌규 | 성리학적 심신관계론 | | |
| 46 | 2010. 02.28 | 이상목 | 가야의 미술과 정신세계 - 암각화 -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고령지역 예술의 특징과 정신세계<br>* 소장 金文基 |
| | | 박천수 | 토기를 통해 본 대가야 | | |
| | | 丁海任 | 가야금의 창조와 우륵의 예술세계 | | |

| | | | | | |
|---|---|---|---|---|---|
| | | | 에 관한 연구 | | |
| | | 조재모 | 高靈 古建築의 性格과 齋室建築 | | |
| | | 정은우 | 고령의 미술과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 | |
| | | 이한상 | 가야 금속공예품의 특색과 변화양상 | | |
| | | 최재호 | 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 - 壬亂 戰爭實記를 中心으로 - | | |
| | | 張東翼 | 『高麗史』의 編纂過程에서 改書 | | |
| | | 薛錫圭 | 宣祖代 政局과 李山海의 정치적 역할 | | |
| | | 林炳學 | 退溪의 河圖洛書論과 그 性理學的 의의 | | |
| 47 | 2010.08.31 | 최성진 | 고령의 무속문화 연구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고령지역 민속<br>* 소장 金文基 |
| | | 김재호 | 高靈지역 洞祭의 전승양상과 특징 | | |
| | | 김재웅 |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과 비극성 | | |
| | | 김기현 | 고령군 '장승제'의 축제화 방안 | | |
| | | 오용원 | 古文書를 통해본 高靈 商務社와 그 관련 儀禮 | | |
| | | 김덕호 | 경북 고령지역어의 음운 연구 | | |
| | | 金文基 | 高山七曲 園林과 高山七曲詩 연구 | | |
| | | 이종호 | 퇴계 수창시의 양상과 의의 | | |
| | | 崔成宗 | 長聯修辭藝術論 | | |
| | | 黃渭周 |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 | |
| | | 성해준 | 동아시아 佛者들의 『明心寶鑑』 수용 양상 | | |
| | | 윤순갑 | 위정척사파의 정치적 현실인식 | | |
| 48 | 2011.02.28 | 高柏園 | 朱子思想之再定位 - 以牟宗三、陳榮捷爲核心之討論 - | 기획논문 | * 학술지 제호 변경: 『退溪學과 韓國文化』에서 『退溪學과 儒敎文化』로<br>* <ISSN 1225-4061>에서 <ISSN 2233-7032>로 변경<br>* <기획논문>: 동아세아 유교문화의 재조명<br>* 소장 金文基 |
| | | 김경수 | 북송초기 삼교회통론의 양상 | | |
| | | 정우락 | 한국문학에 나타난 물 이미지의 이항대립(二項對立)과 그 의미 | | |
| | | 殷善培 | 漢郊祀歌 <練時日> 章 考釋 | | |
| | | 최재호 | 松巖 『龍蛇日記』의 문학적 특성 논의 | | |
| | | 임종진 | 深齋 曺兢燮의 性理思想 - 『性學八圖並 | | |

| | | | | | |
|---|---|---|---|---|---|
| | | | 說』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 |
| | | 이동희 | 한국에서의 동양사상 연구의 새로운 방향과 문제점 | | |
| | | 장윤수 | 葛庵 李玄逸의 敬論과 이론 배경 | | |
| | | 권상우 | 일제강점기 '민족성과 儒學의 관계성' 담론을 통한 '한국적 儒學'(얼儒學) 試論 - 다카하시 도루, 신채호, 정인보의 담론을 중심으로 - | | |
| | | 김옥성 | 이병기 시의 유교적인 생태학적 상상력 연구 | | |
| 49 | 2011. 08.31 | 張東翼 | 李齊賢, 權漢功 그리고 朱德潤 - 高麗後期 性理學 受容期의 人物에 대한 새로운 理解 -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性理學의 收容과 展開樣相<br>* 소장 金文基 |
| | | 임종진 | 曾點과 朝鮮時代 儒學者들 | | |
| | | 박균섭 | 고종기를 통해 본 퇴계의 인격 | | |
| | | 우인수 | 愚伏 鄭經世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 | | |
| | | 金文基 | 張緯恒의 雲浦九曲 園林과 雲浦九曲詩 | | |
| | | 趙箕鎬 |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理解와 應用 - 氣候適應形質論의 觀點에서 - | | |
| | | 엄연석 | 퇴계의 역학사상에서 象數와 義理의 가역적 전환문제 | | |
| | | 최정준 | 旅軒의 易學觀 - 河圖洛書의 이해를 중심으로 - | | |
| | | 김인철 | 退溪와 星湖의 易學思想에 대한 參量 | | |
| | | 조장연 | 퇴계와 다산의 역학적 변용과 동질성 | | |
| | | 황종원 | 최제우와 박은식의 유교개혁 방향, 평등관,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태도 | | |
| | | 李海濤 | 崔承老的崇儒抑佛觀 | | |
| 50 | 2012. 02.29 | 장승구 | 愚伏 鄭經世의 철학과 경세론 | 기획 | * <기획논문>: 상주지역 退溪學派의 학문과 사상 |

| | | | | | |
|---|---|---|---|---|---|
| | | 張庚男 | 國文本 實記 <임진녹>, <임즈록>으로 본 修巖 柳袗 | 논문 | * 소장 金文基 |
| | | 신두환 | 息山 李萬敷의 '書畫論' 연구 | | |
| | | 이향배 | 立齋 鄭宗魯의 한시 연구 | | |
| | | 이형성 | 江皐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 | |
| | | 姜文植 | 溪堂 柳疇睦의 교육활동 | | |
| | | 朴均雨 | 王世贞生平简述及其儒道释三教的立场论 | | |
| | | 신재환 | 蔣士銓의 詩論 연구 | | |
| | | 金文基 | 水落臺九曲과 水落臺漁歌九曲詩 연구 | | |
| | | 박인호 | 『동사찬요』「열전」에 나타난 오운의 역사인식 | | |
| | | 張宏斌 | 立法以垂教 — 儒教重建之文化向路的思考 — | | |
| 51 | 2012.08.31 | 장윤수 | 퇴계철학에 있어서 理의 능동성 이론과 그 연원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韓·中 儒學의 傳統과 變化<br>* 소장 金文基 |
| | | 殷慧 | 簡論陳淳的禮樂思想 | | |
| | | 金禹彤 | 高麗朝圜丘祭天禮考述 | | |
| | | 조기호 | 人類氣候帶適應論과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觀點에서 본 黃帝內經 五態人의 陰陽和平之人考察 | | |
| | | 韓梅 | 한·중 한시의 근대적 대응 양상 - 茶山 丁若鏞과 定庵 龔自珍의 사회시를 중심으로 - | | |
| | | 임헌규 | 유교 심신관계론에 대한 일고찰 - 朱子와 栗谷을 중심으로 - | | |
| | | 林炳學 | 『周易』에 표상된 吉凶의 哲學的 意味 | | |
| | | 신재환 | 『甌北詩話』의 蘇軾 詩에 대한 시학적 관점 探討 | | |
| | | 박정해 | 陶山書堂의 傳統 立地環境 | | |
| | | 김미선 | 『錦溪日記』의 서술 특성과 작자 의식 | | |
| | | 권상우 | 퇴계의 마음치료와 도덕교육 | | |
| 52 | 2013.02.28 | 김문기 | 朴龜元의 姑射九曲 園林과 姑射九曲詩 | 기획 | * 학술지 표지에 <발간등록번호> 기재 시작 |

| | | | | | |
|---|---|---|---|---|---|
| | | 洪軍 | 退溪 “敬”說淺析 - 以《聖學十圖》爲中心 - | 논문 | * <기획논문>: 朝鮮中期 韓國儒學의 特徵과 反省<br>* [서평]:「주자학의 창조적 이해 - 이동희의『주자학 신연구』에 대한 서평 -」(권상우) 수록<br>* 소장 金文基 |
| | | 정우락 |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 | |
| | | 박인호 |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별의 역사인식 | | |
| | | 何秋敏 | 《論語》的君子觀 | | |
| | | 林炳學 | 『格致藁』의 ‘往來臨立’에 대한 易學的 고찰 | | |
| | | 張親霞 | 傳統儒家倫理的等差性之現代反思 | | |
| | | 정재훈 | 연행사가 체험한 조선과 청의 세 가지 경계 | | |
| | | 함규진 | 17세기 초 조선의 恩義兼盡論 논쟁과 그 정치사상적 의의 | | |
| | | 박정해 | 宗廟와 社稷壇, 圜丘壇 立地의 風水環境 | | |
| 53 | 2013.<br>08.31 | 한재훈 | 退溪의 書院 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 白雲洞書院 享祀禮 수정을 중심으로 -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退溪 李滉과 陶山書院<br>* 소장 金文基 |
| | | 김형수 | 李滉 書翰을 통해 본 明宗代 書院의 創設과 運營 | | |
| | | 김명자 | 『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 | |
| | | 우인수 |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 | |
| | | 정시열 | 退溪 家書에 나타난 話法에 대한 一考 - 孫子 安道에게 부친 서찰을 중심으로 - | | |
| | | 임종진 | 성와 이인재의 성리사상 -「고대희랍철학고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 |
| | | 임병학 | 동무 이제마의 四象的 사유체계와『孟子』 | | |
| | | 김광섭 | 유교교양교육과 초중고 전통문화교육 연계 방안 - 유교교육기관의 아동/청소년 연수과정을 중심으로 - | | |

| | | | | | |
|---|---|---|---|---|---|
| | | 김나혜 | 茶山의 寓話詩 연구 - <烏鰍魚行>·<貍奴行>·<蟲食松>·<海狼行> 등을 중심으로 - | | |
| | | 丁海任 | 杖鼓記譜法에 나타난 周易의 상징성 연구 | | |
| 54 | 2014.<br>02.28 | 马士远 | 王莽《尚书》学研究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중국 經學 연구의 현재적 좌표<br>* 소장 金文基 |
| | | 刘彬 | 论帛书《衷》篇的篇名及其象数思想 | | |
| | | 杨树增 | 《春秋》《左传》原本皆为史 | | |
| | | 高敏<br>高尚举 | 当前臆解《论语》现象的初步考察 | | |
| | | 宋立林 | 由新出简帛看《论语》成书问题 | | |
| | | 김경수 | 성리학의 시대와 주희의 환상 - 유학 현대화의 단초 모색 - | | |
| | | 이난수 | 張桂香의 『음식디미방』과 유교여성 살림의 철학 | | |
| | | 박인호 |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 | |
| | | 정우락 | 성주 및 김천 지역의 구곡문화와 무흘구곡 - 무흘구곡의 일부 위치 批正을 겸하여 - | | |
| | | 손유진 | 愚伏 鄭經世의 輓詩를 통해 본 죽음의 形象化 方式 | | |
| | | 丁海任 | 退溪『啓蒙傳疑』의 五音六律에 관한 硏究 | | |
| | | 박정해 | 紹修書院 立地環境과 風水 | | |
| 55 | 2014.<br>08.30 | 김도형 | 19세기 후반 河回 '屛儒'의 家學과 斥邪 활동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西厓 柳成龍의 學問과 繼承<br>* 소장 金文基 |
| | | 김학수 | 17세기 西厓 柳成龍家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 | | |
| | | 도현철 | 西厓 柳成龍에 대한 一 視線 - 17세기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 | |

| | | | | | |
|---|---|---|---|---|---|
| | | | 』의 경우 | | |
| | | 문석윤 | 西厓 柳成龍의 「主宰說」에 대하여 | | |
| | | 우인수 | 남북 분당과 서애 류성룡 | | |
| | | 張閏洙<br>盧先明 | 孝的歷史意蘊及其現代價值 | | |
| | | 林炳學 | 『周易』의 文王八卦圖에 근거한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고찰 | | |
| | | 최은주 |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예안사족 김령의 인맥기반 형성과 특징 | | |
| | | 김문기 | 琴川九曲 園林과 琴川九曲詩 연구 | | |
| | | 서신혜 | 李穀의 산문에 나타난 나눔 문화의 양상과 의미 - 「借馬說」과 「義財記」를 중심으로 | | |
| | | 禹芝英 | 南坡 洪宇遠의 논설류 산문 연구 | | |
| 56 | 2015.<br>02.28 | 우인수 | 선비들의 임란 倡義精神과 의병활동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역사와 생활 속의 선비<br>* <부록>에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규정> 수록<br>* 소장 林宗鎭 |
| | | 이수환 |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 | | |
| | | 박희택 | 여성선비의 덕성과 맥락 | | |
| | | 김미영 | 유교이념의 구현장소로서 사당祠堂 | | |
| | | 박정해 | 檜淵書院의 立地環境과 風水論理 | | |
| | | 안희정 | 유학의 감정 이해 - 퇴계의 「心統性情圖」와 『樂記』를 중심으로 | | |
| | | 梁承二 | 五常에 관한 연구 | | |
| | | 李宗秀 | 官僚病의 梧里淸廉 스토리텔링 힐링 | | |
| | | 장윤수 | 여중군자 장계향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 | | |
| 57 | 2015.<br>08.31 | 구본욱 | 석담 이윤우의 師承과 交遊에 관한 고찰 | | * <부록>에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규정> 수록<br>* 소장 林宗鎭 |
| | | 박균섭 | 친일유림의 수사학 - 유교적 가르침의 실종 - | | |
| | | 이기원 | 공자의 인인시언적 방법과 철학상담 -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문답법을 중심 | | |

| | | | | | |
|---|---|---|---|---|---|
| | | | 으로 - | | |
| | | 최일범 | 유학의 심성론과 심리학 - 중용과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 | | |
| | | 马士远<br>宋海燕 | 《禹贡》荆州“菁茅”考 | | |
| | | 崔錫起 | 遜庵 申晟圭의『論語講義』연구 | | |
| | | 김학수 | 영남학인 孫德升(1659-1725)의 학자 관료적 성격 - 嶺南學과 近畿學의 절충이 빚어낸 인간상 - | | |
| | | 이석규 | 동강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 | | |
| | | 정재훈 | 『慕堂日記』를 중심으로 본 孫處訥의 교육활동 | | |
| | | 김미선 | 『看羊錄』의 표현적 특징 고찰 | | |
| | | 장경남 |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 | |
| | | 정우락 | 주자시의 문학적 수용과 문화적 응용 - <觀書有感>을 중심으로 - | | |
| 58 | 2016.<br>02.29 | 崔錫起 | 寒岡 鄭逑의 經學觀과 學庸解釋 | 기획논문 | * <기획논문>: 한강 정구의 경학과 예학<br>* <부록>에 <慶北大學校退溪硏究所 규정> 수록<br>* 소장 林宗鎭 |
| | | 남재주 |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의 편찬과 의의 | | |
| | | 장동우 | 寒岡『五服沿革圖』의 禮學史的 位相 | | |
| | | 鄭景柱 | 『五先生禮說分類』의 편찬과 그 의의 | | |
| | | 최은주 | 『豊山金氏世傳書畵帖』의 구성과 金重休의 편찬의식 | | |
| | | 백운용 | 대구지역 九曲과 한강 정구 | | |
| | | 박인호 | 성주 읍지『경산지』의 파판과 그 정치적 함의 | | |
| | | 이재두 |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포산지』편찬 | | |

| | | | | |
|---|---|---|---|---|
| | | 林炳學 | 『格致藁』의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의 天人性命과의 상관성 고찰 | |
| | | 전성건 | 大山 李象靖의 理主氣資說과 그 思想史的 意味 | |
| 59 | 2016. 08.31 | 李劍淸 梁釗 | 韓中儒敎文化認知 : 唐前“四史”韓半島文獻源流疏證及現代闡釋 | * <부록>에 <『퇴계학과 유교문화』 게재논문 목록(제1호-제59호> 수록<br>* <부록>에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규정> 수록<br>* 소장 林宗鎭 |
| | | 임노직 | 李滉의 「獨遊孤山」과 李野淳의 「孤山九曲」에 대하여 | |
| | | 정우락 | 임진왜란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 문학적 대응 | |
| | | 이재현 | 純祖대(1800~1834) 安東地域 儒林의 정치적 동향 | |
| | | 朴均燮 | 퇴계학의 오독 - 다카하시 도루와 아베 요시오의 퇴계론 비판 | |
| | | 박병구 | 內聖外王 사상의 君子政治 연구 - 孔子와 孟子를 중심으로 - | |
| | | 서근식 |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 재고찰 | |
| | | 임헌규 | 德개념 논쟁에 대한 일고찰 : 『논어』 ‘德句節’에 대한 朱子와 茶山의 해석비교 | |
| | | 장윤수 | 예천지역 성리학계의 지형도 - 16~17세기를 중심으로 | |

* 논문 제목은 기본적으로 학술지 본문에 표기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지 <목차>에 실린 제목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3호에 실린 논문인 「韓國의 儒敎哲學과 退溪先生의 地位 및 그 時代의 社會情勢」는 <목차>에서는 「韓國의 儒敎哲學과 退溪先生의 地位 및 그 時代의 社會相」으로 되어 있다.